



주간통일정세 2010-35(2010.08.23~08.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3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당대표자회 앞두고 연일 ‘전쟁분위기’ 조성(8/24, 자유아시아방송 (RFA))

- 북한이 내달 초순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식량난과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연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방송은 중국 창바이(長白)현 백산시의 소식통을 인용, “요즘 북한에서는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정신 차릴 틈 없이 사람들을 들볶는다”면서 “길거리와 공장, 기업소 등의 구호판을 새롭게 고쳐 달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말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이 방송에 “‘8/15’(광복절 지칭) 이후 공장이나 기업소별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생활하기 위한 종업원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세 긴장을 이유로 이처럼 조직별 종업원 총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주민들에게는 강연회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도끼사건’(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미제가 일으킨 가장 큰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끼사건 당시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힘.
- 그는 “공장이나 사업소 마당에 들어서면 여기 저기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자’는 구호가 시꺼먼 글씨로 나붙어 있다”면서 “회령시만 해도 노동적위대(민방위 해당) 비상소집과 등회관계·대피·소개 등의 훈련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카터 방북날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8/26, 조선중앙통신)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선교구역의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
-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첫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날 오후 4시반 평양 도착 직후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면담한 데 이어 그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을 뿐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함.
- 통신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시찰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앙통신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보도한 점으로 미뤄 25일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써 평양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됨.
- 김 위원장은 이 공장 현지지도에서 “공장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



은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 생산을 부단히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인민들에게 맛있고 보기 좋은 사탕, 과자를 공급하자면 이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향료와 색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상품 도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 이날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김경희, 홍석형, 태중수가 수행

● **北평남도 김정일 黨대표자회 대표로 추대(8/28,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 노동당 평안남도 당대표회가 26일 평성시에서 열렸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총비서를 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평성시 당조직 대표인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홍인범이 했다"며 "대표회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 **北, 평양 출입통제...당대표자회 초읽기(8/28,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이 내달 초순 열리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지방 주민들의 평양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지난 26일부터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10호 초소'에서 지방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에 대한 검색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평양시에 체류 중인 지방 당 간부, 지방 기업소 관계자, 친척방문 중인 지방 주민에게는 이달 말까지 모두 평양을 떠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데일리NK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경비총국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10호 초소'는 평양으로 들어가는 주요관문마다 설치되었으며 현재 ▲황해북도 황주~평양의 '중화 10호 초소' ▲평안남도 평성~평양의 '서포 10호 초소' ▲황해북도 사리원~평양의 '마장 10호 초소' 등에서 검문이 이뤄지고 있음.

● **北당대표자회 앞두고 김정일 대표 추대 잇따라(8/29, 조선중앙통신)**

- 내달 초순 44년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하는 당 하급 조직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도당은 지난 26일 신의주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 총비서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함.
- 이어 통신은 "(이번 평안북도 당대표회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최영림과 도·시·군당, 각급 단위 당조직, 도급 기관 초급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했다"면서 "평안북도



당 비서 김재룡의 제의에 따라 김정일 동지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날까지 평안북도 외에 평안남도와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 대표로 추대됨.

[김정일 訪中 관련]

1)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확인 행로

- 8월 25일(수)
 - 저녁, 평양 출발
- 8월 26일(목)
 - 0시, 국경 통과(만포~지안)
 - 오전 7, 8시, 지린 시 도착
 - 위원(毓文)중학교(김일성 모교) 방문
 - 베이산(北山) 공원(항일유적지) 방문
- 8월 27일(금)
 - 오전 9시, 호텔 출발, 창춘으로 이동
 - 오전 10시 30분, 창춘 난후호텔 도착
 - (김정일-후진타오, 북·중 정상회담 예상)
- 8월 28일(토)
 - 오전 9시 5분, 난후호텔 출발
 - 오전 10시~10시 30분 농업박람회장 방문
 - 지린 농업대 방문
 - 12시 55분, 난후호텔 도착
 - 오후 8시 40분, 난후호텔 출발
 - 오후 8시 52분, 창춘역 도착
 - 오후 9시 15분, 창춘역 출발
- 8월 29일(일)
 -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도착
 - 선친의 혁명유적지 방문, 참배
 -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의 한 별장에 투숙

2)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기사보도

- 김정일 訪中 일지(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전격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 최고통치자로서 6번째이고, 1980년대 초반 당 중앙위 비서 신분으로 중국에 간 것까지 포함하면 통산 7번째임.
 - 과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지를 최근부터 역순으로 정리
 - ▲2010.8/26~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
 - ▲2010.5.3~7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후진타오 주석 초청)
 - ▲2006.1.10~18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후진타오 주석 초청)
 - ▲2004.4.19~2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후진타오 주석 초청)
 - ▲2001.1.15~20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장쩌민 주석 초청)
 - ▲2000.5.29~3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장쩌민 주석 초청)



▲1983.6 =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방중(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 초청, 비공식 방문)

- 김정일, 지린시 항일유적지 방문(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 지린(吉林)을 방문해 선친 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항일유적지를 방문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지린(吉林)시에서 위문(毓文) 중학교와 항일유적지인 북산(北山)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힘.
 - 위문중학교는 고(故) 김일성 주석이 2년간 다녔던 학교로 지난 2월 북한 측의 의전담당자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찾았음.
 - 위문중학교는 1912년생인 김일성 주석이 15세때인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수학했던 곳으로, 자서전에 김 주석이 위문중학교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 김 주석은 1928년 위문 중학교 수학 당시 반일 데모를 진행하면서 ‘반동교사’에 대한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고 전해짐.
 - 북산공원은 항일전쟁 당시 전사한 혁명열사기념탑과 기념관, 묘역이 5만4천㎡ 면적으로 조성
 - 이 곳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일본에 맞서 싸웠던 동북항일연군이 가장 많이 모셔졌으며, 기념관의 2.3관에는 항일전쟁과 6.25전쟁(중국명 항일원조전쟁) 당시의 열사 22명의 사적이 전시돼 있음.
- 中, 지린 철통 경비(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 지린(吉林)시를 방문했을 때 현지 당국이 주변을 철통 경비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말함.
 - 지린(吉林)시 위문(毓文) 중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한 중국 여성은 “그들(김 위원장 일행)이 아침에 도착했다”면서 “당시 수많은 공간이 도로에 배치돼 있었고 도로는 봉쇄됐다”고 증언
 - 이 여성은 “그들이 간 후 공간들이 떠났고 도로 봉쇄도 해제됐다”고 말함.
 - 지안(集安)시의 상강청 홀리데이 호텔 직원은 북한 대표단이 호텔에 머물렀다고 확인했지만 여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
- 김 위원장 방문 위문中 ‘휴교’(8/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린(吉林)시 위문(毓文)중학교 방문 행사는 일부 학생들이 휴교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짐.
 - 이 학교 학생 200여명이 가입한 바이두(Baidu) 인터넷 카페에는 김 위원장의 방문 덕분에 학교를 쉬게 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옴.
 - 한 학생은 “김정일 장군님,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다른 학생도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똥똥이’(二<月+半>가 며칠 있다 갔으면 더 좋겠다”는 글을 올림.
 - 또한 김 위원장의 일행을 실제 목격했다는 글은 전혀 없는 반면 “누가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정말 TV에 나오는 거랑 똑같나?”, “김정일이 이미 간 것 같은데 누가 봤나” 같은 질문이 잇따름.
 - 한편 카페에는 김 위원장과 김정운이 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문이 전날부터 미리 돌았음을 추정케 하는 글들도 있었음.
 - 한 학생이 25일 오후 10시경 “작은 김씨 똥똥이(金二<月+半>)가 정말 내일 우리 학교에 오느냐”는 글을 올리자 곧바로 다른 학생이 “큰 똥똥이(大<月+半>)가 작은 똥똥이를 데리고 온다더라”라고 댓글을 달았음.
 - 한편 북·중 우의의 상징인 위문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조차 북한 지도자에게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
 - 한 학생은 “선생님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무산계급의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이 참관을 오시니 창가에 물건을 치워놓으라고 하셨지만 한 급



우는 (그들이) 보이는 대로 가져갈 것이니 당연히 치워야지요라고 말했다”며 비꼬기도 했음.

- 의전차량들 야밤 외출행보 주목(8/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의전차량들이 26일 밤 일제히 투숙 장소인 지린(吉林) 시내의 우송(霧淞)호텔을 빠져나갔다가 약 50분 만에 되돌아 왔음.
 - 의전차량들은 이날 밤 10시 20분(한국시간 11시20분)께 호텔에서 나와 시내의 지린 서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돼 김 위원장 일행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현장에 있던 각국 취재진이 한때 긴장
 - 그러나 50분 후인 11시 10분께 차량들이 호텔로 되돌아오자 현지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 일행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 온 것으로 판단
 - 김 위원장은 직전 방중에서도 첫날인 지난 5월 3일 다롄(大連)의 숙소에서 의전차량 편으로 외출해 야경과 밤바다를 보고 복귀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음.
 - 한편, 의전차량이 호텔로 돌아온 이후 호텔 주변의 경계경비 상황도 다소 완화
 - 현재 우송호텔 주변에는 경찰차량은 물론 의전차량이 목격되고 있으며 무장경찰 병력이 삼엄한 경계경비를 벌이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호텔로 통하는 두 곳의 진입로도 현재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음.
 - 우송호텔 측은 26일 예약은 불가하지만 2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반인 투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김정일, 창춘행...의전차량으로 이동(8/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전차량 편으로 창춘으로 향했으며 전용 특별열차는 별도로 움직여 창춘으로 가는 게 포착
 - 아울러 창춘의 5성급 호텔인 난후(南湖)호텔이 김 위원장의 창춘 숙소로 예약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김 위원장이 창춘 일정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방중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한 보안속에서 노출을 꺼리고 있으며 김 위원장을 수행중인 북·중 양국의 고위인사들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음.
- 김정일-후진타오, 창춘서 정상회담 개최(8/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께 의전차량 편으로 지린(吉林)시를 출발해 1시간30분을 달려 창춘 난후(南湖)호텔에 오전 10시 30분께 진입했으며 호텔에서 오후 내내 김 위원장 의전차량의 외출은 확인되지 않음.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점심 시간 전에 난후호텔에 중국 수뇌부 가운데 중요인사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후 주석 아니면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최근 며칠새 휴양차 동북3성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날 창춘의 난후호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숙소출발...귀국길 오른 듯(8/28,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사흘째인 28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의 숙소에서 이동



- 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분(한국시간 오전 10시5분)께 투숙했던 난후(南湖)호텔을 출발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수뇌부가 전날인 27일 난후호텔에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오찬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귀국 예상속 中산업시찰(8/28,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5분께 투숙했던 창춘(長春)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해 시외곽의 농업박람회장을 찾았으며 1시간 가까이 머문뒤 다시 지린(吉林) 농업대로 향함.
- 김정일, 창춘 난후호텔서 장시간 대기(8/28,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5분께 숙소인 난후호텔을 떠나 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과 지린(吉林) 농업대학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창춘이치자동차(제1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지만, 의전차량은 창춘이치자동차로 향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이날 낮 12시 55분께 난후호텔로 돌아옴.
- 김정일, 창춘역 출발(8/29,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 특별열차가 현지시각으로 28일 오후 9시 15분께 창춘(長春)역을 출발
 -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을 태운 의전차량 20여대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중국 경찰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창춘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해 10여분 후인 오후 8시 52분께 역에 도착함.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는 이미 창춘역에서 대기 중, 김 위원장은 창춘역 도착 후 귀빈실로 가서 중국 측 고위인사들로부터 환송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하얼빈서 선친 혁명유적지 시찰(8/29,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28일 밤 창춘(長春)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으로 직행해 29일 하얼빈에서 선친의 혁명유적지를 둘러본 것으로 확인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애초 김 위원장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시찰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이런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하얼빈에서 김 위원장의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혁명유적지를 찾아 참배한 후 송화(宋花)강 내 섬인 타이양다오(太陽島)의 한 별장에 투숙해 여장을 푼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은 하얼빈, 北TV는 안중근(8/29,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날 밤 ‘안중근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쓰다’를 방영해 눈길을 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11시44분부터 오후1시까지 1시간16분간 ‘조선 예술영화’ 코너에서 이 영화의 1부를 방영했고, 오후 9시30분부터 10시40분까지 1시간10분간 제2부를 방영
 - 이 영화는 북한 조선영화촬영소가 1979년 제작한 2부작으로 우리 민족과 일제 사이의 민족 모순과 대립 관계를 기본 축으로 삼아 안 의사의 반일 애국사상과 이토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일제의 침략 본성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화광’인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 제작에 직접 간여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동향

- 8/23 김정일, 음악무용대공연 '선군승리 천만리' 관람(8/23, 중통·중방)
 - 최영림(내각총리),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이영호(총참모장), 최태복·김국태·김기남(黨 비서), 黨·政 책임일꾼 등과 함께 관람
- 8/23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23, 중방)
- 8/23 김정일, 故 권정웅(4.15문학창작단 작가) 영전에 화환 전달(8/23, 중통)
- 8/24 김정일, 927닭공장 현지지도(8/24, 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홍석형·태중수(黨 부장) 등 동행 및 주상성(인민보안부장), 리병삼(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영접
- 8/26 김정일, 평양 곡산공장 현지지도 및 기술개건에 이바지한 기업소등에 「감사」전달(8/26, 중통·중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홍석형·태중수(黨 부장들) 등 동행
- 8/26 김정일, 故 김성규(黨 부장, 77세) 빈소에 화환 전달(8/26,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시작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8/24, 중통·중방)
 - 김영남(보고), 최영림(내각총리),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영호(총참모장), 최태복(黨 비서/사회) 등 참석
 -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모든 사업이 당의 노선과 정책,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하고, 韓美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
- 黨·최고인민회의, 8/24 김성규(黨 부장, 77살) 사망 訃告 발표(8/26, 중방)
- 김혁(혁명투사) 사망 80돌 중앙추모회, 청년회관에서 진행(8/25, 중통)
- 金父子 咸鏡南道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 8/25 함흥대극장에서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기념보고)·류현식(道인민위원장) 등 참가 하 진행(8/26, 중방)
- 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대표회, 8/25 '김정일'을 대표자로 추대(8/27, 중방)
-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영도자육을 옮긴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최희정(黨 부장) 등 참가 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26, 중통)



나. 경제

■ 기타 (대내 경제)

- 조선인민군 내무군 차백용소속부대 건설자들,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박차(8/23, 중방)

다. 군사

● 北, 스텔스도로 칠하고 가짜 전투기·함정 배치(8/23, 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정찰자산의 감시망을 피해 핵심 장비에 스텔스 페인트(도료)를 칠하고 가짜 전투기와 함정 등을 배치토록 하는 위장전술이 기록된 북한군 교범이 입수됨.
- 충남에 있는 갈렙선교회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의 정찰수단에 핵심 장비가 포착되지 않도록 각종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위장전술을 구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북한군 교범 ‘전자전 참고자료’ 등을 입수했다”고 밝힘.
- 북한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가 지난 2005년 발간한 이 교범은 함정과 전투기, 전차 등에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도록 했음.
- 또 가짜 전투기를 비롯한 가짜 활주로와 해군 동굴기지 입구, 함정 등도 만들.
-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장사정포 궤도진지와 진지입구 등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 수단으로부터 숨기도록 입구에 반(反) 전파, 반 적외선 흡수제를 바르고 진짜 궤도에서 150~130m 떨어진 곳에 가짜 궤도 입구를 만들되 입구에는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각반사기’를 설치

● 北, 평양 인근 대규모 병력·화포 전개(8/24, 연합뉴스)

- 북한군은 지난달 12일부터 평양 인근에 대규모 병력과 기갑부대, 화포 등을 전개하고 있음.
-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평양 인근에서 대규모 국가급 행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규모의 병력과 기갑장비, 화포 등을 다수 전개 중”이라고 밝힘.
- 북한은 우리 해군의 서해 훈련기간(5~9일) 동·서해에서 해상기동 및 사격훈련을 했으며 지난달 1일 이후 중단한 전투기 비행속달훈련을 지난 12일부터 재개

● 북한, 군 간부에 15일씩 위로 휴가(8/29, 도쿄신문, 연합뉴스)

-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차례로 인민군의 연대장급 이상 간부들을 가족과 함께 군 휴양소에 보내 15일씩 휴가를 즐기게 하고 있



다고 보도

-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 사는 군 간부는 지난달 초 군이 준비한 열차를 타고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휴양시설에 가서 휴식했고, 식비와 숙박비는 모두 무료였다고 함.
- 신문은 내달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군부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것이거나 북한이 ‘수령 결사 용위’의 전형으로 떠받드는 오중흡 제7연대장 탄생 100주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도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도 준(準)전시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함께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페이스북 운영자는 조평통 ‘6.15편집사’(8/2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6.15편집사’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23일 파악됨.
- ‘우리민족끼리’로 등록된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ur-iminzok)의 운영자는 이날 북한과 관계를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인터넷을 통한 질문에 “우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선륙일오 편집사입니다. 평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밝힘.
- ‘6.15편집사’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체제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지난 19일 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뒤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각종 동영상과 기사를 올리고 있음.

● 北, 상하이엑스포 소개 웹사이트 개설(8/23, 신화통신)

- 북한이 2010 상하이(上海) 엑스포의 북한관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
- 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북한이 상하이엑스포 북한관(조선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www.expo2010-dprkorea.org)를 개설했다고 보도
- 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은 평양의 명소를 비롯해 아리랑 축전, 가극 ‘꽃파는 처녀’ 등 예술공연을 비롯한 민속전통, 영통사, 선죽교, 백두산,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사이트에는 북한관의 내부 전경도를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에 관한 각종 영상정보물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엑스포 무대에 참가한 북한은 내달 6일 북한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



- **北신의주 홍수로 14명 사망(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6만 4천여명이 긴급 대피함.
 - 방송은 국제적십자사(IFRC)의 ‘긴급 상황보고’를 인용,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의 범람으로 이 지역에서 주민 1만 5천 가구가 가옥을 잃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헤어진 가족도 찾아 주고 있다”고 밝힘.
 - IFRC는 또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홍수 발생 당일 ‘재난대응팀’을 신의주에 급파해 이동식 식수정화기 두 대를 전달하고 이재민 2천 500가구에 주방기구, 담요, 식수 정화제 등이 포함된 구호품 세트를 나눠줬다”고 덧붙임.
 - IFRC는 장마철에 앞서 조선적십자회에 재난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응급구호품 2만 7천 세트를 미리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IFRC 중국 베이징 사무소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적십자 현장조사단이 24일 다시 신의주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선 IFRC의 ‘재난구호긴급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특별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함.

- **페이스북,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폐쇄(8/24, 연합뉴스)**
 - 세계 최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업체인 ‘페이스북’이 지난주 개설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폐쇄
 -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북한의 페이스북 계정 ‘우리민족끼리’ (www.facebook.com/uriminzokkiri)에 접속을 시도하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뜨고 접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북한측은 이 계정이 차단되자 곧바로 계정 아이디를 ‘우리민족’ (www.facebook.com/uriminzok)으로 바꿨다고 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나 ‘우리민족’ 계정 역시 열리지 않고 있음.
 - 페이스북이 이들 북한 계정을 언제 폐쇄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 VOA는 미국의 컴퓨터 전문잡지 ‘피시월드’를 인용, “페이스북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이용 약관을 어겨 폐쇄했다고만 밝혔다”면서 “페이스북 계정 사용자가 미국 정부의 금수조치 대상국에 있거나,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라 있으면 페이스북에서 영업활동이나 웹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이용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



- **北TV, 신의주 농경지 2천 458정보 침수(8/24, 조선중앙TV)**
 - 압록강 범람으로 홍수 피해를 당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경우 24일 현재 2천458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 TV는 이날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신의주에서 큰물에 의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며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4일 현재 시적으로 총 2천 458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특히 상단협동농장에서는 480여 정보, 하단협동농장에서는 8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은 하나도 거두어 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힘.
 - 방송은 “지난 21일에 큰물 피해를 입은 이곳 시에는 22일까지 비가 내렸다”며 “그 기간 물은 부분적으로 빠졌는데 23일 새벽부터 압록강 상류에서 또다시 많은 물이 흘러내려 상단리와 하단리를 비롯한 신의주시의 일부지역의 농경지가 다시 물에 잠겼다”고 말함.
 - TV는 신의주시의 논밭이 흙탕물에 침수된 화면을 1분가량 내보내면서 “지금 평안북도 큰물피해 방지대책 연합지휘부와 신의주시안의 일꾼, 근로자들은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신형탱크 ‘폭풍호’ 공장도 침수 피해(8/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최신행 탱크 ‘폭풍호’의 생산 기지로 추정되는 함경남도 신흥군 소재 일명 ‘61호 공장’이 지난달 말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를 봤음.
 - 방송은 ‘함경남도 함흥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주력 탱크 ‘천마호’와 최신행 ‘폭풍호’를 생산하는 61호 군수공장이 장맛비에 침수됐다”며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함경남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장진강발전소가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신흥군이 통제로 물에 잠겼다”고 밝힘.
 -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시설로서 신흥군 가평리에 위치한 ‘61호 공장’은 주력 탱크인 ‘천마호’와 최신행 ‘폭풍호’의 본체를 생산하며, 인근 함흥시 사포구역 초운리에 소재한 ‘211호 공장’에서 포탑을 얹어 완제품으로 조립한다고 방송은 설명
 - ‘함흥시 소식통’은 “가평리 ‘61호 공장’의 경우 기린산 기슭에 뚫은 지하갱도 안에 모든 직장(생산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급격히 불어난 물로 갱도가 침수되는데다 산사태가 갱도 입구를 덮쳐 노동자 여러명 사망했다”면서 “아울러 탱크의 심장부인 중국산 원동기(엔진) 230여대가 진흙탕에 잠겼고 검사실이 침수돼 대부분의 계측기들이 못쓰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1호 공장’을 한달 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문이 내려온 것으로 미뤄 피해가 큰 것 같다”면서 “장진강 수문을 예고 없이 연 것에 대한 문책으로 함경남도 기상관측소 간부들이 대부분 해임, 철직됐다는 말도 있다”고 전함.



- **北, 신의주 홍수 사흘만에 유엔 지원 요청(8/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압록강의 범람으로 신의주 일대가 침수된지 사흘만인 24일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
 - 북한은 지난달 중순 이후 간헐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RFA에 “북한 당국이 24일 오후 유엔에 긴급 지원을 공식 요청해왔다”면서 “평양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이 25일 중 북한 당국과 회의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요덕군서 고대 집터, 유물 발굴(8/25, 조선신보)**
 - 정치범수용소로 널리 알려진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서 고대 집터와 유물이 발굴
 - 신문에 따르면 요덕군 요덕읍 서남방 2km의 금야강 상류 별판에 위치한 유적지에서는 15m² 넓이의 집터와 돌로 만든 반달칼 조각, 활촉, 그물추, 질그릇 등이 나왔음.
 - 신문은 “북한의 연구집단은 반달칼 등 석기 여러 점과 구멍줄무늬그릇, 접아가리그릇 등이 함께 발견된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구멍줄무늬그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유적은 구멍줄무늬그릇의 분포 영역을 새롭게 확증해 고조선 역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귀중한 실물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압록강 일대 또 폭우…수위 줄지 않아(8/27, 선양신화)**
 - 압록강 지역에 26~27일 또다시 폭우가 내렸다고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홍수통제본부가 전함.
 - 홍수통제본부에 따르면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丹東)에서 26일 오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78mm의 비가 쏟아졌으며 지난 19일 이후 압록강 수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해상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기간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서도 300mm가 넘는 호우로 주택 7천750여 가구가 침수, 파괴되고 7천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보도

- **북·중 접경 폭우로 8명 사망, 17만명 대피(8/28, 선양신화)**
 - 북한과 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에 26~27일 다시 폭우가 내려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단둥시 지방정부가 전함.
 - 단둥 홍수통제본부 관계자는 또 19~22일 폭우가 내린 뒤 압록강 수위가 줄지 않아 해상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7일 서해 밀물 탓에 압록강 하구의 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봄.
 - 랴오닝성 일대에서는 앞선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4명이 숨지



고 25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단둥과 마주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서도 주택 7천750여 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金父자와 김정숙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평북 정주청년역·낙랑대 성피복공장 등지에 건립(8/23,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폴란드 당국, 北계좌 불법송금 조사 방침(8/26, 자유아시아방송(RFA))

- 폴란드 금융당국이 자국 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북한 계좌 현황과 이를 통한 불법자금 송금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폴란드 소식통' 인용, "폴란드 금융감독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목한 폴란드 Kredyt 은행의 북한 계좌 현황과 이를 통한 자금 송금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힘.
-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새 방침은 적극적인 조사와 불법행위 차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어서 주목
- 소식통은 또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Kredyt 은행 계좌에 예치한 뒤 본국에 송금하는 문제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함.
- 방송은 이와 관련, "폴란드 금융감독원은 아직 북한의 불법 계좌와 송금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접하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설명
- 폴란드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작성한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계좌가 개설돼 있는 8개 유럽국가에 포함됐고, 특히 'Kredyt'은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유엔 제재 1874호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연합개발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21개 해외 은행 중 하나로 지목됨.

● 駐쿠바 北대사, '공격받으면 핵억제력 사용'(8/28, 연합뉴스)

-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권성철 대사는 27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말함.
- 권 대사는 이날 쿠바와 북한 간 외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경우 우



- 리는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 현 상황은 북한과 쿠바 국민들 간 지지와 유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시

[카터 訪北 관련 기사]

- 北, 카터 방북하면 곱즈 석방(8/24, 연합뉴스)
 - 북한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아이잘론 말리 곱즈를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의 고위 관리가 23일 밝힘.
 - 이 관리는 카터 전 대통령이 곱즈를 석방시키기 위한 “순수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4일 오전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미국 관리는 없다고 말함.
- 카터 前 미대통령 방북(8/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
 -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그 일행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비행장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맞이했다”고 짧게 보도
 - 이들 세 매체는 오후 5시로 시간을 맞춰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로써 미 정부도 공식적 언급을 피했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처음 확인됨.
 -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는 내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인 확인을 피해왔음.
 -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그는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당시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
 - 이번 방북의 표면적 목적은 지난 1월 북한에 무단 입국해 8개월째 억류 중인 곱즈씨의 석방 협상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등 북미관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곱즈씨는 지난 4월 재판에 회부돼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 벌금형을 받았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달 9~11일 곱즈씨 석방을 위해 영사 담당 관리와 의료진을 극비리에 평양에 보냈지만 북측은 석방을 거부
- 카터, 공항서 시종 웃음(8/25, 조선신보)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반 평양 공항에 도착,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으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승용차에 탈 때까지 시종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조선신보가 전함.
 -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공항에서는 북한매체들이 전한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외에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함께 카터 전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어린이가 꽃다발을 주었다고 밝힘.
 - 신문은 또 “비행장에는 기자들을 위한 촬영대가 설치되었다”며 “약 30명



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했다”고 소개

- 北 김영남, 카터 면담…백화원 영빈관 만찬(8/25,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만나 환담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찬을 함께 함.
 - TV는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소개한 뒤 이 자리에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관계 부문 일꾼(간부)들이 배석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방송은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소식을 오후 8시 32분께부터 다뤘고 그에 앞선 30여 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50주년 기념행사 소식으로 채웠음.
 - 이어 조선중앙통신이 오후 8시 51분께 김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을 위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연회를 마련한 소식을 덧붙였다.
 - 이날 오후 4시 30분 평양 공항에 도착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어진 저녁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한 것을 볼 때 정작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다음날인 26일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카터 전 대통령 평양에 하루 더 체류(8/2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북한을 방문 중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일정을 하루 연장해 최소한 27일 까지 머물 것으로 확인
 -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에 들어갔으나 일단 평양 체류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 방북에 정통한 측으로 부터 확인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 연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의 면담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이전에 북한 정부의 공식 초청과 김 위원장 면담을 약속 받은 상태에서 평양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베이징(北京)까지 가지 않고 지린(吉林)성 등만 방문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北통신 “카터 전 대통령 평양 출발”(8/2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났다고 밝힘.
 - 통신은 별도의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정부와 카터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보고받고 불법 입국한 미국인 곰즈씨를 특사해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지난 25일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사흘째인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곰즈씨와 함께 민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보임.
 - 통신은 또 곰즈씨를 석방한 경위와 관련, 미국 국무부의 영사 담당 부차관보 일행이 지난 9~11일 북한을 방문해 외무성 및 해당 법기관 ‘일꾼’(간부)들을 만났다고 밝힌 뒤 “카터는 미국 정부와 전(前) 대통령의 이름으로 곰즈의 불법 입국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지칭)께서 특사권을 행사해 돌려보내 주실 것을 요청



- 하는 편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올렸다”고 주장
- 카터 전 대통령이 고프스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 통신의 보도 내용으로 미뤄, 이번에 카터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난 것으로 보임.
 - 통신은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기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 북미 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러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덧붙임.
 -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조미(북미) 쌍무관계 문제와 6자회담 재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문제 등 호상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카터 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이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
- 카터, 고프스 동반해 귀국길 올라(8/27, 연합뉴스)
-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고프스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카터 센터도 성명을 통해 카터 전대통령 일행의 귀국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프스를 사면했다고 밝힘.
 -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고프스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 카터 전 대통령은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공항에서 출발 직전 5분간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신화통신은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우크라이나 국경절 즈음 ‘웍또르 야누꼬비치’ 대통령에게 축전(8/24, 중통)
- 중국 ‘호금도’ 국가 주석, 8/24 김정일에게 ‘北 홍수피해’ 관련 위문 전문 전달(8/25, 중통·중방)
 - 중국 정부, 對北 ‘긴급구호물자’ 제공 결정(8/25, 중통; 8/26, 중방)
- 中 인민해방군 심양군구 대표단(단장: 사령원 ‘장우협’ 중장), 평양 도착(8/25, 평방)
- 베트남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응오 쉰언 릭’ 총정치국 부주임, 중장), 평양 도착(8/25, 평방)
- 在北 中 기업가 ‘장경영’, 8/15 라선시 앞바다에서 北 여성 3명 구조 후 익사(8/26, 중통)
- 北 외무성, 조선-쿠바 사이 외교관계설정 50돌 즈음 연회 마련(8/26, 중통·평방)



3. 대남정세

● 北 김영남, “핵억제력 기초한 보복성전” 주장(8/24,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도발 기도’라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응한 초강경의 자위적 조치로써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것”이라고 주장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오늘 조선(한)반도에는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침략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노동당을 “선군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라고 지적하고 내달 초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또 “오늘 우리 앞에는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국방력과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최영림 내각 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당 비서들인 김국태, 전병호, 우동춘 국방위원회 위원, 내각 부총리들인 로두철, 박수길, 김락희, 강능수, 한광복 등이 참석
- 김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는 그가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1960년 8월 25일 고 김일성 주석과 함께 ‘근위서울 류경수 105땅크(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2005년부터 갑자기 등장해 매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기타 (대남)

- 한상렬목사 연행 관련 “통일애국활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만행”이라 비난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 중단 요구(8/23, 중통·노동신문)
- 北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총회’ 대변인, 한상렬 목사 “사법처리 중단, 즉각 석방” 주장 및 訪北활동 “지지와 연대, 석방운동” 선동 담화(8/24,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日 외무 회담..“6자회담 재개 이견”(8/28)

-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28일 6자 회담 재개 시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특히 중국 측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북을 확인하려는 일본 측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 중국을 방문 중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은 이날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 책임 공방을 거론하며 “한국 국민정서와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6자 회담 조기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음.
-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오카다 외무상이 양 부장과 회동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 회담이 재개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UN) 제재의 해제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노력을 하거나” 비핵화로 나아가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앞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비핵화 단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음.
- 반면 중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른 6자 회담 당사국간을 연결하는 ‘셔틀 외교’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16~18일까지 평양에 파견했음. 우 대표는 이어 26일 서울 방문에서 중국측에서 제안한 6자 회담 3단계 재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의사를 한국정부에 전달했음.
- 중국의 3단계 재개 제안은 우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한 후 6개 참가국이 준비 모임을 갖고 이어 공식적인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임. 이와 관련 북한은 6자 회담에서 각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려면 먼저 유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오카다 외무상은 양 외교부장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오카다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방중 보도에 대해 양 부장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음.

● 美 “유엔총회 기간 대북대화 가능성 판단”(8/27)

- 미국 국무부는 내달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6자회담에 참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고 북한과 추가적인 대화가 가



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밝힌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 회동이 생산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북한의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해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 도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종류의 도발적 행동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여러번 언급했듯이 우리는 과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지원을 해왔고, 또 다시 지원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중국 등 역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날씨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중, ‘6자회담-한반도 현안’ 협의(8/27)

-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이 자리에서 우 대표는 신 차관에게 지난 16~18일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북한측이 6자회담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재개 중재안에 동의했으며, 한국도 이 같은 중재안에 동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우 대표는 회동에 앞서 “어제 위성락 한반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6자회담과 관련해 깊이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의 생각이 일치된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 내용에 대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그는 26일 저녁 위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긴장이 격화되지 않게 꾸려가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경주하며 ▲대화과정의 복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음. 우 대표는 이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며, 28일 오전 일본으로 떠날 예정임.



● 中 “6자회담 3단계 재개”..韓 “여건부터 조성”(8/26)

-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6일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 30여분간 만찬을 겸한 면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양측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긴장이 격화되지 않게 꾸려가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경주하며 ▲대화과정의 복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위성락 본부장이 밝혔음. 양측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자리에서 중국측은 북한측이 6자회담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재개 중재안에 동의했다는 북·중 협의결과를 전달하면서 우리측도 이 같은 중재안에 동의해달라는 취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중국측은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여건부터 조성하는게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우리측은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적절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중재안을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3단계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을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을 계속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려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태도를 바꾸는게 중요하다”며 “6자회담 재개가 그렇게 빠른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 중국측은 천안함 후속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을 우려하는 뜻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 한편 우 대표가 지난 16~18일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측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우다웨이 “6자회담, 비핵화·동북아 평화에 도움”(8/26)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7일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음. 우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올해는 한·중 수교 18주년으로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나에게 말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나라이고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양국) 지도자와 국민이 방문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 <김정일訪中> 6자회담 국면바뀌나(8/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6일 전격방중을 계기로 북핵 6자회담을 둘러싼 국면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이미 중국과 북한은 현재의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재개쪽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
-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동북아 안보질서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북한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 쪽으로 국면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18일 북한을 방문하고 이날 오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됨.
- 우 대표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자는 우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우 대표는 남북한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을 순방할 예정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씨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도 6자회담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카터 전 대통령은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담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 했음.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고프스씨 석방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개인방문 형식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방북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임.
-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음. 한미 양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불능화 약속을 행동으



로 보여주고 강제로 추방한 사찰단도 복귀시켜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임. 다만,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음.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에서 천안함 사태를 다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아직까지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아 당장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주말 또는 내주초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6자회담 재개 기류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 등에서 보듯 한반도 정세가 워낙 유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현재의 일반적 관측이 바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 유외교 “6자재개前 불능화재개-사찰단 복귀해야”(8/25)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음.
- 유 장관은 이날 교도통신 등 방한중인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의무사항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유 장관은 “북한은 불능화의 약속을 행동으로 다시 지켜야 하며 강제로 추방된 사찰단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방한하는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에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임. 정부는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와 6자회담 재개는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지만 성격과 차원이 다르며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천안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유 장관은 일본과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종료가 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군대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라고 밝혔음.
- 유 장관은 이어 “연금과 임금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이며 1세와 2세에까지 남아있



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감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국민 개인이 일본 법정을 통해 권리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음.

나. 미·북 관계

● 케리 “곰즈 석방 환영, 대화노력으로 이어지길”(8/28)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7일(현지시각)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국적의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환영했음. 케리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곰즈의 석방에 크게 안도하며 감사한다”면서 “곰즈를 사면함으로써 북한은 올바른 일을 했다”고 밝혔음.
- 그는 곰즈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및 그동안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던 국무부, 스웨덴 정부에 사의를 전했다. 그는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의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임무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창출하려는 6자회담 모든 당사국의 새로운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케리 위원장은 곰즈가 거주하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으로 그동안 곰즈 석방 촉구 활동을 벌여왔고,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미국의 고위급 인사 중 하나로 꼽혀왔음.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 확인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북한에서 풀려난 곰즈 건강 양호”(8/28)

- 북한에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온 아이잘론 말리 곰즈(31)씨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음. NYT는 이날 북한에 불법 입국죄로 수감됐다 석방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27일 보스톤에 도착한 곰즈씨의 건강상태와 관련, 그의 계부인 밀튼 맥카시씨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 맥카시씨는 곰즈는 건강이 좋은 상태로 보스톤에 도착했으며,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그를 잘 보살펴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맥카시씨는 곰즈가 북한에 억류된 이후 가족들은 고위인사가 나서서 그를 구출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왔으나 아는 고위인사가 없어 애를 태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카터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곧 곰즈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고위 인사가 방문해 그와 사진을 함께 찍지 않는 한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음.
- 곰즈의 삼촌인 마이클 패로우씨는 지난 7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곰즈가 석방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최근



● 美정부, 북한기밀 유출 혐의 분석관 기소(8/28)

- 미국 연방정부가 27일 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국무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분석관을 기소했음. AP 통신과 뉴스 위크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스티븐 진우 김(43)이라는 남성이 지난해 6월 특정 국가와 관련한 국방 정보를 언론매체에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해당 매체의 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연방수사국(FBI)에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건넸다는 자료는 해당 국가의 군사력과 미국의 정보원, 정보수집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급 및 민감 기밀로 분류됐음.
-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자료에 적시된 국가가 북한이며 자료를 건네받은 언론사는 폭스뉴스라고 밝혔음. 미 정부는 유출된 기밀이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그가 정확히 미국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음. 데이비드 크리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기밀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오늘 기소는 국가의 민감한 안보 자료를 다루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같은 날 16개 정보기관에 국가기밀 유출에 우려를 표하는 메모를 보내는 등 최근 위키리크스의 문건 공개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 후 내부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임. 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는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심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그의 변호사인 아베 로웰이 전했다.
- 김씨의 변호인들은 성명을 통해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어떤 국가가 비행으로 제재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순전히 평범한 전망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종류의 관측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주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씨는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음. 그는 오는 10월13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임.

● <北역류 곱즈, ‘조용한’ 귀환>(8/28)

- 불법 입국혐의를 받아 북한에 수감됐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31)씨가 27일 오후(현지시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고향인 미국 보스톤에 도착해 가족들과 재회했음.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한 지 7개월여 만임. 곱즈의 석방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성사됐고 특히 북·미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곱즈의 귀환은 기자회견과 사진촬영 등의 행사도 없이 20분 만에 끝이 났음. 작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여기자들을 데리고 귀환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임.
- 카터 전 대통령과 곱즈는 이날 오후 2시께 보스톤 로건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전세기에서 내려 가족들과 감격의 상봉을 했지만, 활주로



에서 대기 중이던 50여명의 취재진을 뒤로 한 채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음. 고프는 반소매 티셔츠와 회색 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비교적 깔끔한 복장이었으며 예전 사진의 모습보다 훨씬 야위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거동엔 불편이 없어 보였음. 고프는 카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세기에서 내려와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가족 및 친지들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눴음.

- 고프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를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소형 플래카드까지 가져와 고프의 귀환을 축하했음. 고프를 석방시킨 주역인 카터 전 대통령도 잠시 전세기에서 내려 고프의 가족들에게 그를 인계해준 뒤 곧바로 다시 항공기에 올라 이륙했음.
- 취재진들은 활주로에서 포토라인과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기자회견을 기다렸지만, 카터 전 대통령과 고프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느커녕 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 한 번 취하지 않고 이내 각자의 길로 헤어졌음. 애초 고프와 카터 전 대통령은 공항 도착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에서는 모든 행사가 취소됐음.
- 이처럼 고프의 귀환 행사가 간소화된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사전 발표대로 카터 전 대통령의 임무가 고프의 석방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에 국한됐고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이 성사되지 않아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카터 전 대통령이 고프 석방 외에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라던 향간의 기대가 퇴색됐다는 것임. 카터는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공항에서 출발 직전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음. 카터센터도 “이번 일은 카터 센터의 개인적인 임무였으며, 미국 정부의 요청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밝혀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음.

● 美정부, 북-중 정상회담에 “노코멘트”(8/28)

-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노코멘트”라며 공식적인 반응을 유보했음.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대해 “우리는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밝혔으며,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두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게 될 내주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앞서 크롤리 차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한 논평을 요청한데 대해서도 “내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대답하는 등 북·중간 움직임에 대한 사실확인과 평가에 신중한 입장



을 기하고 있음.

● 카터, 北석방 곶즈 동행 美귀환(8/28)

- 불법 입국죄로 북한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곶즈(31)씨와 그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 갔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2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으로 귀환했음. 카터 전 대통령은 사면 형식으로 풀려난 곶즈와 함께 전세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 이날 오후 2시께 곶즈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에 도착했음. 카터 전 대통령과 곶즈는 50여명의 취재진과 곶즈의 가족·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공기에서 내려 가족들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눴고 공항내 건물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음.
- 카터 전 대통령도 곶즈를 가족들에게 인도해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시 항공기를 타고 떠났음. 이날 가족들과 7개월만에 재회한 곶즈는 예전 사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거동엔 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반소매 티셔츠에 운동화 등 깔끔한 옷차림이었음. 곶즈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친지들은 카터 전 대통령과 포옹하면서 카터가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에 앞서 곶즈의 가족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곶즈와 가족 성원들에게 그동안 길고,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오늘 곶즈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 돌아오고, 그를 집에서 환영할 수 있게 돼 축복을 느낀다. 오늘의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음. 가족은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카터 센터 관계자들의 인도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등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음. 가족은 특히 “곶즈를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살펴주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석방키로 합의해준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밝혔음.
- 한국에서 대북인권활동과 영어교사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곶즈는 올해 1월25일 북한에 무단입국한 뒤 체포돼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었음. 미국 국무부는 곶즈의 석방에 대해 “카터 전 대통령의 인도적 노력에 대해 감사하며, 곶즈를 풀어준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음.

● 美, ‘북한 여행 경고’ 발령(8/27)

- 미국 국무부는 26일 미국 국민에 대해 북한 여행 경고(Travel Warning) 발령하고 북한 여행을 가급적 피하거나 불가피한 여행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것을 당부했음.
- 북한 여행에 대한 경고 조치는 이번이 처음임. 이번 조치는 커런트 TV 기자 2명과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이번에 풀려난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 등 미국 국적을 가진 4명이 북한에 잇따라 억류됐다 어렵게 풀려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프스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북한으로의 여행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으로 여행하려는 미국 시민에게 여행 경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국무부는 별도의 여행 경고문을 통해 “완전한 공식적인 허가와 북한 정부로부터의 입국 사증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가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국무부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법 위반에 대한 북한의 처벌은 미국에서의 유사한 위반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면서 “북한 정부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 강제노동이 곁들여진 장기간의 투옥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무부는 이어 “미국인의 북한 여행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적절한 서류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록 사고일 경우라도 체포 및 장기억류로 이어진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촉구했음. 이와 함께 적법하게 북한에 입국한 경우라도 법을 위반하면 추방, 체포, 투옥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승인과 안내 없이 북한 내를 여행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북한 당국은 북한의 정책, 공공 발표문 또는 북한의 전·현 지도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국인은 억류해 왔다”면서 북한 내에서 북 지도부 등에 대한 비판 제기를 삼갈 것을 당부했음.

● 미국무부 “곰즈 사면 北결정 환영”(8/27)

-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에 억류돼온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 씨가 석방된 데 대해 “곰즈 씨를 특별사면해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국무부는 이날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곰즈 씨의 석방을 환영하고, 그가 가족들과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또한 평양에서 미국의 영사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시했음. 이어 국무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고프스 씨를 고향(매사추세츠주)으로 데려와 가족들과 상봉시킨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사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비공식적인 임무였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이번 방북을 제안하거나 주선하지 않았다”면서 “곰즈 씨의 건강이 미국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방북)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北통신 “카터 전 대통령 평양 출발”(8/27)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오전 11시12분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났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별도의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정부와 카터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보고받고 불법 입국한 미국인 곰즈씨를 특사해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사흘째인 이날 오전 곰즈씨와 함께 민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보임.
- 중앙통신은 또 곰즈씨를 석방한 경위와 관련, 미국 국무부의 영사담당 부차관보 일행이 지난 9~11일 북한을 방문해 외무성 및 해당 법기관 ‘일꾼’(간부)들을 만났다고 밝힌 뒤 “카터는 미국 정부와 전(前) 대통령의 이름으로 곰즈의 불법 입국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지칭)께서 특사권을 행사해 돌려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장을 통해 올렸다”고 주장했다.
- 카터 전 대통령이 곰즈씨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 통신의 보도 내용으로 미뤄, 이번에 카터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곰즈씨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누가 쓴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작성 주체가 누군인지에도 관심이 쏠림.
- 중앙통신은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기간 김영남 상임위위원장과 만나 북미 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김 상임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러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조미(북미) 쌍무관계 문제와 6자회담 재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문제 등 호상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중앙통신은 “카터 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이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곰즈씨는 지난 1월25일 북한에 무단입국한 뒤 체포돼, 4월 재판에서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카터, 평양서 뭐하나?··北매체 37시간 넘게 함구(8/27)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이후 북한 매체들은 27일 오전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은 물론 평양에 들어가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동정에 대해 단 한 줄도 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음.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께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 공항에 도착하자 북한 매체들은 30분 뒤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고 이어 카터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백화원 영빈관 만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 같은날 오후 8시51분께 백화원 만찬 소식을 전한 것을 마지막으로, 27일 오전 9시 현재 37시간 가량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음.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카터 전 대통령은 당초 평양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김정일 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카터가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와, 중국 지린(吉林)시의 한 호텔에서 묵은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향방이 주목됨.

○ <美전문가들, 北권력승계 움직임 주시>(8/27)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한반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외교·안보환경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음. 특히 이들 전문가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북한의 후계구도를 굳히기 위해 이뤄진 외교적 ‘이벤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으며, 카터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음.
-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3개월만에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맞다면, 이는 아마도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음.
- 덴마크 연구원은 “3개월 전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김 위원장이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수 주일 앞두고 재차 중국 방문에 나선 것은 김정은을 후계로 지명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또 한차례의 시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김정은을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권력승계 준비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그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에 앞서 중국 지도부에 김정은을 소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음. 클링너 연구원은 카터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과 관련, “만일 중국의 고위관리가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중국 동쪽으로 온다면 김 위원장이 베이징까지 장기 열차여행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게 되고, 그러면 카터가 체류일



- 정을 연장했기 때문에 면담 성사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음.
-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오래전부터 ‘손님’을 기다리게 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체류 기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음.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소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왜 평양 체류 일정을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질로 잡혀 있는 고프 씨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관적인’ 관측을 내놨음.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코리아 체어)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카터의 지위와 방북 경험을 감안할 때 카터가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김 위원장의 방증으로 만남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음. 차 교수는 “만일 카터가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카터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정은과 만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라고 말했음.

● 르 피가로 “카터 방북, 별 성과 없을 것”(8/27)

-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26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음. 르 피가로는 이날 “카터 특사의 평양 임무, 워싱턴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과 북핵문제에 관한 진전을 이끌어낸 사실을 언급하며 “불가능한 임무를 해내는 남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 칼을 겨누고 있고 북핵 6자회담도 담보상태에 놓여 있는 등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이번에는 카터 전 대통령이 기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르 피가로는 카터의 특수 임무가 8년 강제노역형과 7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31)씨를 구해내는 인도적인 문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신문은 고프씨의 지난 1월 월북이 북한에 새로운 대미 압력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정책을 더욱 꼬이게 하는 모험적 행위라고 지적했음. 결국 존 케리 및 빌 리처드슨 상원의원들의 호소에도 흔들리지 않던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고프씨가 자살 직전까지 가 있다는 북한의 교묘한 의미 부여에 굴복, 그의 석방 조건으로 미국 주요인사의 방북이라는 교환조건에 대한 기본합의를 해줬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 르 피가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워싱턴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미 외교관들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인 임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카터의 방북에 정치적 성격을 부여해 선전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미국의 조심스러운 조치라고 분석했음. 신문은 카터 대통령이 공황에서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영접을 받은 것이 바로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대한 방증이라고 덧붙였음.

● “美정부내, 대북정책 강온론 혼재” <FP> (8/26)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강·온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26일 외교전문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백악관 및 국무부의 고위층과 일선 협상책임자들이 온도차를 보임.
-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천안함 공격과 미얀마(버마)에 대한 핵무기 확산의혹 등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 국무부에서 실질적으로 대북 문제를 총괄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도 이런 대북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임. 반면 북한과의 ‘대화창구’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대화를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달 초 국무부의 대북정책 평가회의에 초대됐던 한 참석자는 “클린턴 주변 사람들은 북한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그들은 북한이 우리의 대화 거부를 빌미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음.
-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평가회의에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과 빅터 차, 앨런 롬버그 스티븐슨센터 연구원,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관,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 대북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스티브 린턴 이사장,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이 참석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 <김정일訪中> 평양에 남은 카터는(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새벽 중국을 전격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평양에 체류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림.
-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께 평양에 도착한 카터 전 대통령은 당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뒤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5시께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오후 8시50분께 카터 전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과 담화하고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배석한 가운데 만



찬했다고 보도했음.

- 카터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북한 언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김 위원장이 현재 방중길에 올랐다면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땅을 떠날 때까지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카터 전 대통령은 본래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씨의 석방을 위해 민간 자격으로 방북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얻고 방북하는 터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북·미간 간접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돼왔음.
-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천안함 사건 이후 대결국면에 처해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 본인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방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국 그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 '머쓱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여전히 카터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일부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80대 중반의 노령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 도착이후 김영남 위원장과의 일정 소화 이후 또 다시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일정을 끝내는 대로 27일중 귀국해 카터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면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체류 일정이 연장될 것으로 보임. 특별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던 26일에는 평양 주변을 둘러보거나 북한이 마련한 '특별일정'을 소화했을 가능성을 소식통들은 상정하고 있음.
- 카터 전 대통령은 16년 전 방북시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대동강변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등 다양한 체험과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음.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27일 돌아와 카터 전 대통령과 면담한다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3박4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의 방북을 계기로 '중대결심'을 하고 이를 중국 수뇌부와 논의하기 위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카터 영접'을 맡기고 방중을 단행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음.
-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떠나면서 카터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방중 일정을 알리고 김영남 위원장과의 면담 및 다른 일정을 안내하면서, 미리 양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추론인 것임. 이 경우 카터 전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음.

● 北김영남,카터 면담·백화원 영빈관 만찬(8/25)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만나 환담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소개한 뒤 이 자리에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관계 부문 일꾼(간부)들이 배석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하지만 이 방송은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소식을 오후 8시32분께부터 다뤘고 그에 앞선 30여 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50주년 기념행사 소식으로 채웠음. 이어 조선중앙통신이 오후 8시51분께 김 상임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을 위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연회를 마련한 소식을 덧붙여 보도했음.
- 이날 오후 4시30분 평양 공항에 도착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어진 저녁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한 것을 볼 때 정작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만남은 다음날인 26일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됨. 북한을 방문한 외국의 고위 인사가 명목상 국가원수를 만난 뒤 같은 날 김 위원장을 면담한다는 것은 북한의 의전 관례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임.

● “카터, 공항서 시종 웃음” <조선신보>(8/25)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반 평양 공항에 도착,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으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승용차에 탈 때까지 시종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날 전했다.
- 조선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공항에서는 북한매체들이 전한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외에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함께 카터 전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어린이가 꽃다발을 주었다고 밝혔음. 신문은 또 “비행장에는 기자들을 위한 촬영대가 설치되었다”며 “약 3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했다”고 소개했음.

● 北매체 “카터 前대통령, 평양 공항 도착”(8/25)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25일 오후 일제히 보도했음. 중앙통신과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그 일행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비행장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맞이했다”고 짧게 보도했음. 이들 세 매체는 오후 5시로 시간을 맞춰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했음. 공항에 영접 나온 김계관 부상은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카터 방북 적절성 미국내 논란>(8/25)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나선데



- 대해 미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음. 인도적 차원의 이번 임무의 적격자라는 평가와 동시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돌출행동’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런 상반된 의견은 제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4년 이뤄진 카터 전 대통령의 1차 방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데서 출발함. 당시 전쟁 위기로 치달던 한반도 위기를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반전시켰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이는 당시 미 정부의 방침과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활동이었다는 비판도 있음.
 -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북에 나섰던 데다가 CNN 기자를 당시에 대동해 김일성과의 면담 결과를 북한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발표하는 모험을 강행하며 국면을 반전시킨데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임. 1차 방북당시 미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는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약간 속박에서 벗어난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생산적인 협상으로 되돌아왔고, 우리가 북한과 맺은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음.
 -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행동만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에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 카터의 방북을 통한 한반도 국면 전환을 기대했음. 반면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며 북미 제네바 협상의 실무주역으로 활동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은 “카터의 지난번 방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외교를 그가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음.
 - 또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원(KEI) 소장은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카터가 단순히 곰즈귀환 이상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일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입장에서) 카터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카터의 방북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음.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결국 미국인을 데려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방북은 가치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카터가 외교적 대화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 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백악관과 국무부가 명백히 이번 일을 계획하는데 개입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외교적 대화나 돌파구 마련의 전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카터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에 큰 돌파구 마련은 힘들 것이라



● 北김영남 “핵억제력 기초한 보복성전” 주장(8/24)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4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도발 기도’라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응한 초강경의 자위적 조치로써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음.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오늘 조선(한)반도에는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침략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방송들은 전했다. ‘보복성전’ 주장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는 이어 노동당을 “선군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라고 지적하고 내달 초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오늘 우리 앞에는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국방력과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음.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최영림 내각 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당 비서들인 김국태·전병호, 우동측 국방위원회 위원, 내각 부총리들인 로두철·박수길·김락희·강능수·한광복 등이 참석했음.
- 김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는 그가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1960년 8월25일 고 김일성 주석과 함께 ‘근위서울 류경수 105땅크(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2005년부터 갑자기 등장해 매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北김정일, 후유증으로 공간감각 이상 가능성”(8/23)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8월 겪은 뇌졸중으로 인해 왼쪽 공간을 인식·인지하지 못하는 ‘반측 무시’(hemi-neglect) 증상과 신체 한쪽



디클레버 박사 개인의 견해이지 미국 정부나 국무부, 국무부 의무관실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음.

● “美 대북제재 리스트에 기업 24곳, 개인 4명”(8/23)

- 미국이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기업은 24곳, 개인은 4명인 것으로 파악됐음. 외교통상부가 23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자체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한 제재대상 기업은 모두 24곳으로 나타났음. 이 중에는 북한 회사 또는 은행이 상호 출자한 스위스계 코하스 AG가 포함돼있음. 또 개인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과 스위스 국적의 야코프 스타이거 코하스 AG 회장, 조선광업개발무역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차이 알렉스 부부 등 모두 4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르면 금주말 또는 내주초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통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가 WMD와 관련한 기존 제재대상 명단과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행정명령 12938, 13382, 13466호를 발효, 북한의 WMD 및 전략물자 수출활동을 규제해왔음.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연변거처 하얼빈 도착(8/29)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하얼빈에 도착한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음. 김 위원장은 하얼빈에 도착해 헤이룽장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음. 김 위원장의 하얼빈 방문은 이례적임.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 편으로 28일 밤 9시 15분께 지린(吉林)을 거쳐 옌지(延吉)-투먼(圖們)-훈춘을 거쳐 하얼빈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하얼빈 방문은 너무 뜻밖”이라며 “현재 하얼빈 방문 목적에 대해 파악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단 하얼빈의 송화(宋花)강 내 섬인 타이양다오(太陽島)의 한 별장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얼빈의 한 누리꾼은 이날 오후 5시



께 인터넷에 “김 위원장 일행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음.

- 당초 김 위원장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을 마치고 투먼 또는 훈춘을 통해 두만강을 건너 귀국할 것으로 관측됐었음. 하얼빈역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30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역을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 일행이 이때 하얼빈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김정일, 하얼빈서 선친 혁명유적지 시찰(8/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28일 밤 창춘(長春)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으로 직행해 29일 하얼빈에서 선친의 혁명유적지를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음.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애초 김 위원장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시찰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이런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밝혔음.
- 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하얼빈 방문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배경에 대해 파악중”이라고 말했음. 김 위원장은 하얼빈에 도착해 송화(宋花)강 내 섬인 타이양다오(太陽島)의 한 별장에 투숙해 여장을 푼 것으로 전해졌음. 김 위원장은 하얼빈에서 김 위원장의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혁명유적지를 찾아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하얼빈은 김 주석과는 인연이 깊은 도시로, 빨치산 운동을 펼칠 거점으로 생각했었던 곳이라고 김일성 회고록에 적혀있음. 특히 1927년 8월 조선공산주의 혁명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든 김 주석은 혁명 동지였던 김혁이 하얼빈에서 빨치산 운동을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30년 8월 랴오닝성 뤼순 감옥으로 옮겨져 사형을 당하자 하얼빈에 한달간 머물면서 김혁 체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직접 조직활동에 참가하기도 했음.
- 김혁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첫 혁명송가를 지었음. 김 주석은 김혁이 사망한 후에도 혁명 1세대의 표상으로 추켜세워왔음. 김 주석은 생전인 1964년 중국 방문 당시 하얼빈을 찾아 김혁의 혁명 유적지를 둘러보기도 했음. 김 주석은 15세되던 해인 1927년 1월부터 2년반 가량 지린(吉林)시 위윈(毓文)중학교를 다녔으며, 이 시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흡수했고 동맹휴학으로 일부 교원들을 몰아내는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음.
- 이로 미뤄 김 위원장은 3남인 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할 다음달 초 순 조선노동당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성지순례’ 차원에서 하얼빈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됨. 앞서 김 위원장은 방문 첫날인 26일 김 주석의 모교인 위윈중학교를 방문한 바 있음.
- 이처럼 김 위원장이 창춘에서 하얼빈으로 직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연변조선족자치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옌지(延吉)-투먼(圖們)-훈춘(琿春) 등에서



는 수일전부터 김 위원장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작업들이 포착됐었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하얼빈에서 출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하얼빈역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30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역을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 일행이 이때 하얼빈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 편으로 하얼빈에서 창춘을 거쳐 쓰핑(四平)-선양-단둥-신의주 또는 쓰핑-통화(通化)-지안(集安)-만포 노선으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창춘에서 연지-투먼-남양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 北당대표자회 앞두고 김정일 대표 추대 잇따라(8/29)

- 내달 초순 44년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하는 당 하급 조직 행사가 잇따르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 도당은 지난 26일 신의주에서 당 대표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당 총비서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음. 중앙통신은 “(이번 평안북도 당대표회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최영림과 도·시·군당, 각급 단위 당조직, 도급 기관 초급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했다”면서 “평안북도 당 비서 김재룡의 제의에 따라 김정일 동지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은 이날까지 평안북도 외에 평안남도과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 대표로 추대됐음. 노동당 규약에는 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차하급 당 조직의 대표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비율은 당 중앙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음.

● “김정일, 中지원 받기 위해 방중” <르몽드>(8/29)

-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 몽드는 2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자신의 3남 김정은을 중국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음.
- 르 몽드는 이날 ‘김정일, 중국의 지원 받기 위해 방중’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한 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전략 변화를 알려주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음. 신문은 서울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3남 김정은이 동행한 것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다음달 개최되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요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르 몽드는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첫날 선친 고(故) 김일성 주석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항일 게릴라 활동에 들어가기 전인 1920년대 말에 다녔던 지린시의 위안학교를 방문한 “순례” 행위는 ‘(김씨) 왕조’



의 계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불법으로 입국한 혐의로 8년간의 강제노역을 선고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얻어내기 위해 이번 주 중에 평양에 도착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카터의 북한 방문이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신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 특히 중국은 불과 석달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맞이함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지지를 표현”했다고 말한 것으로 르몽드는 전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3남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대북제재, 또 홍수로 더욱 악화된 경제위기 등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러나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현재의 긴장상황에서 북한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의 재입국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해주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말했다. 르몽드는 한국이 현재로서는 중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쉽게 잊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6자회담 재개 문제와 분리해서 처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소문도 외교가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일訪中> ‘철통보안’ 노림수 뭘까(8/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9일로 중국 방문 나흘째를 맞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임. 북중 양국의 철벽 경계경비 속에 철통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것임. 누구도 예상치 못한 26일 새벽 0시대에, 이제까지 이용하지 않던 방중노선인 북한 만포-중국 지안(集安)을 거쳐 지린시로 향했고, 이틀간의 창춘(長春) 일정을 거쳐 29일 오후 현재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적은 찾을 수가 없음.
- 김 위원장의 방중은 통상 경호상의 이유로 극비리에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도 이해할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직전인 5월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작심한듯 언론에 노출했던 것과는 현격히 다르다는 점에서 뭘가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임.
- 우선 김 위원장의 이번 잠행은 북한 내부 사정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유력함. 김 위원장의 3남 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 다음달 초순 노동당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정치적인 지지와 경제협력 및 원



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방중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사실이 공개될 경우 자칫 골육외교로 비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임.

- 다시말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면서 적어도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돈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국제사회 압박 강화, 잇단 자연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최고지도자가 궁여지책으로 다시 방중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만의 하나 ‘역풍’을 우려해 극비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김정일·정은 부자가 나란히 방중한 모습이 공개될 경우 중국에 ‘세자책봉’ 받으려 간 모양새로 비칠 것을 경계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에 부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항일유적지, 그리고 농업박람회장과 지린 농업대학, 섬유공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그런 탓에 수많은 외신 매체들이 김 위원장을 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진 한장 건져내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 공개가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노출을 꺼린다는 지적도 있음.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발생후 원인규명을 놓고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 대립구도가 이어지다가 5개월여만에 겨우 미국 내에서 북미대화 분위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떠들썩하게 보도될 경우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잠행하고 있다는 분석임.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18일 방북한데 이어 한국,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해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가시화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 공개가 북중 연대를 과시해 한국-미국-일본과의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심하고 있다는 설명임.
- 김 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27일 오후 숙소인 창춘 난후(南湖)호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서도 이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걸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후진타오도 난후호텔 왔다”<호텔 관계자>(8/29)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여장을 풀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에 머물렀다고 호텔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 이 호텔 관계자는 북·중 양국 지도부가 모두 빠져 나간 다음날인 29일 호텔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모두 호텔에 머물렀다”면서 “양국 정상이 만나 북중 양국의 공통 관심사와 천안함 이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증언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도된 북중 정상회담의 개최가 사실상 확인된 셈임.



- 이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은 별도의 별장식 건물 중 6동에 묵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9동 등 별도의 건물에 묵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후호텔은 양국 정상이 떠나간 후인 29일 대외적으로는 봉쇄가 풀렸지만 큰 손님을 치른 뒤 마무리 정리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음.
- 손님 접대를 위해 대형 카펫이 놓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관 정문 앞에는 비막이용 대형 천막이 놓여져 있었고 양국 정상이 함께 관람한 공연에서 연주됐을 것으로 보이는 피아노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었음. 그러나 어렵게 후 주석의 방문 사실을 털어놓은 이 관계자 외에는 함구령이 내려진 탓인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음.
- 김정일 위원장을 봤다는 증언은 고사하고 호텔의 직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들 “잘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보지 못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음. 이들 중 상당수는 27~28일 모두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오늘 갑자기 출근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기자의 취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빛이어서 상부에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음을 짐작하게 했음.
- 후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묵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9호동을 비롯해 7호동 등에는 공간들이 떠나지 않고 분주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음. 이 호텔은 창춘시의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이곳은 5성급으로, 베이징의 дя오위타이(釣魚臺)에 해당하는 지린성의 영빈관임. 입구의 분위기 역시 한적한 дя오위타이 국민관과 흡사했음.
- 1958년 지린(吉林)성의 국민관으로 문을 연 이 호텔은 고(故) 김일성 주석이 창춘을 방문할 때마다 묵었고 지난 40여 년 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의 당·정 지도자들의 숙소로 애용됐음. 김 위원장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진 총통(프레지던트)실은 하루 숙박비가 우리 돈 2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부친인 김일성 주석도 이 객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면적 86만㎡에 건축면적만 14만㎡인 이 호텔은 숲 속에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의 산림호텔’로 불리며 대회의실, 대접건실과 일반객실이 있는 본관과 1동부터 13~14동까지 있는 별도의 별장동으로 나뉘져 있음.

● 김정일, 연변行 가능성..엔지·투먼 방문할듯(8/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 특별열차가 28일 밤 창춘(長春)역을 출발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음. 엔지(延吉)의 한 소식통은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9시 15분(한국시간 오후 10시 15분)께 창춘역을 떠난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는 아직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일단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새벽 방중때 이용했던 압록강 중간지점인 지안(集安)과 압록강 하류의 단둥(丹



東)에는 특별한 징후가 없으며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다른 노선을 이용한 것 같다”고 말해 엔지 또는 투먼(圖們) 노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김 위원장은 조선족 문제로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사상 첫 방문이 됨.

-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이 낙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기 위해 추진중인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에서 창춘시, 지린시와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 엔지와 두만강 접경인 투먼, 훈춘(琿春)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함.
- 중국 정부는 이런 창지투 계획의 핵심인 ‘동해출항권’을 얻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왔으며 김 위원장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임. 이와 관련, 북한은 중국측에 나진항 제1호부두의 10년 사용권을 줬으나 중국측은 사용기간 연장과 다른 부두 사용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은 북중 양국간에 창지투 계획을 비롯한 경험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증거로, 김 위원장의 연변행이 확인되면 북한이 중국의 나진항 부두사용을 확대하고 기간연장 조치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수일전부터 김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해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엔지 시정부와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 훈춘(琿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알려진 게 없으나 귀국은 투먼에서 특별열차로 북한의 온정리로 가거나 훈춘에서 승용차 편으로 권하-방천을 거쳐 나진으로 갈 공산이 커 보임.
- 김 위원장은 방중 첫날인 26일에는 지린에서 부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인 위원(毓文)중학교와 항일유적지인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했으며 둘째날에는 창춘으로 이동해 숙소인 난후(南湖)호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 셋째날인 28일에는 창춘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과 지린 농업대학 등을 방문했음.

● 김정일, 창춘역 출발..귀국길(8/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 특별열차가 현지시각으로 28일 오후 9시 15분(한국시각 오후 10시 15분)께 창춘(長春)역을 출발했음.
- 그러나 특별열차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현재로선 동쪽인 지린(吉林)시 방향으로 향했다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음. 창춘의 한 소식통은 “특별열차가 동쪽인 지린시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국 당국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어느 노선을 택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음. 지린시로 갔다면 지난 26일 방중했던 역순으로 지린-통화(通化)-지안(集安)을 거



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 자강도 만포로 들어갈 수 있음. 이럴 경우 지린-지안 노선이 650km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열차가 시속 80km로만 달려도 29일 새벽 6시께는 지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렇지 않고 옌지(延吉) 또는 투먼(圖們)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으로 갈 수도 있으나 이 노선은 장거리인데다 철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지적임.
- 특별열차가 지린시가 아닌 쓰핑(四平)으로 향했다면 창춘-쓰핑-선양(瀋陽)-단둥(丹東) 또는 창춘-쓰핑-통화-지안 노선 모두 선택할 수 있음.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을 태운 의전차량 20여대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중국 경찰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창춘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해 10여분 후인 오후 8시 52분께 역에 도착했음.
-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는 이미 창춘역에서 대기 중이었음. 김 위원장은 창춘역 도착 후 귀빈실로 가서 중국 측 고위인사들로부터 환송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환송하는 중국 측 고위인사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을 태운 의전차량이 난후호텔을 떠나면서 중국 측 의전담당자인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음. 왕 대외연락부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내내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음.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숙소인 난후호텔을 떠나 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과 지린(吉林) 농업대학을 찾았으며 이후 창춘이치자동차(제1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후 낮 12시 55분께 다시 난후호텔로 돌아왔음. 그 이후 김 위원장 일행은 난후호텔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아 귀국 일정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음.

● 金위원장 탑승차량, 운송차 실려 이동(8/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사용해온 중국의 의전용 차량 벤츠 리무진이 28일 차량 운송차에 실려 이동되는 장면이 목격됐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난후(南湖)호텔을 출발, 창춘(長春)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과 지린 농업대를 방문할 때 탑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리무진은 이날 낮 12시 50분께 북한 측 차량 행렬과 함께 호텔로 복귀했으나 얼마 뒤 차량 운송차에 실려 호텔을 빠져 나갔음.
- 이 리무진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차량 운송차에 실려 호텔로 돌아왔음. 호텔에서 3시간여를 머물던 이 리무진은 김 위원장 일행이 이날 오후 다시 이 호텔을 떠나기 앞서 오후 8시 30분께 다시 운송차에 실려 호텔을 빠져나갔음. 단순한 차량 고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파란색 바탕에 '京FS9532'이 박힌 번호판을 단 이 리무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 당시에도 첫 방문지인 다롄(大連)에서부터 사용했던 중국의 의전용 차량임.



● 김정일, 창춘 난후호텔 출발(8/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이 현지시각으로 28일 오후 8시40분께 창춘(長春)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했음. 의전차량 30여대는 중국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창춘역 방향으로 향했음.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는 창춘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미뤄 김 위원장이 창춘역에서 특별열차 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김위원장 더딘 귀국 행보 이유 뭘까>(8/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8일 귀국 행보가 애초 예상을 벗어나면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외교 소식통들과 대북 전문가들은 방중 사흘째인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창춘 일대 산업시설을 시찰한 뒤 오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음.
-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와의 회담이 하루 전인 27일 모두 마무리된 만큼 더는 중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분석 때문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음. 우선 중국 측은 오늘 오전 김 위원장 일행에게 성대한 조찬을 베풀었음. 하루 전인 27일 밤 송별연에 출연했던 가무단도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을 위한 중국의 마지막 환송연으로 판단됐음.
- 김 위원장 일행이 묵는 난후(南湖)호텔은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투숙객을 받을 수 있다”며 예약을 받기 시작했음. 김 위원장 일행이 오후에는 호텔에 묵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음. 김 위원장의 방중 코스였던 스팅-지안을 운행하는 열차 표도 이날 오후 모두 매진됐다고 판매하지 않았음.
- 관광 성수기인 데다 중국의 열차 표가 쉽게 매진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농촌 지역인 스팅-지안 열차 표가 모두 매진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음. 김 위원장 일행이 이 노선을 거쳐 만포로 들어갈려는 것으로 전망됐던 이유이기도 했음.
- 그러나 오후부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음. 오후 방문 예정이었던 창춘 이치(一氣)자동차 공장 방문 계획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됐음. 김 위원장의 이치 자동차 공장 방문은 이 공장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확인했던 계획이었음.
- 이어 김 위원장 일행이 방중 기간 사용했던 차량이 호텔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오후 4시 50분께는 김 위원장이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리무진이 견인차에 실려 호텔로 돌아왔음. 이어 북측 인사들을 태운 미니 승용차들이 대오를 갖추지 않은 채 시차를 두고 호텔로 복귀했음. 차량들이 속속 복귀했음에도 중국 공안의 호텔 통제는 이해하기 어려우리만치 느슨해졌음. 오전에 설치됐던 폴리스 라인이 오후 2시께 모두 철거되고 공안의 호텔 통제도 김 위원장이 묵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허술해졌음.



- 난후 호텔을 지키던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호텔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나돌았음. 스텝역에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이날 오후 8시께 창춘역에 모습을 드러내고 창춘-선양 구간 열차표가 이날 밤늦게까지 모두 매진됐다며 판매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 일행이 애초 예상했던 스텝-지안 노선 대신 스텝-선양-단둥 노선을 택해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음.
- 그러나 이날 오후 김 위원장 일행이 보여준 행보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설은 북한의 만포 일대 철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방중 코스로 잡은 만포-지안 노선은 화물열차만 하루 한 차례 오갈 정도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음. 게다가 지난 26-27일 압록강 유역에 폭우가 쏟아졌음. 이 때문에 만포 일대의 북한 철도에 문제가 발생, 노선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방중 노선이 이미 노출되면서 신변상의 안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변경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음.
-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김 위원장 탑승 차량이 운행 도중 고장을 일으켰을 가능성임.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무진이 차량 운송차에 실려 호텔로 들어왔다는 것이 그 이유임. 뻑뻑한 일정을 소화한 김 위원장이 피로가 누적돼 휴식을 취하려 했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귀국길에 올랐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피로감을 보인 김 위원장이 호텔로 복귀해 잠시 휴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얘기임.
- 호텔 경호가 느슨했던 점으로 미뤄 호텔이 아닌 창춘의 모 병원에서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김 위원장 일행의 행보가 워낙 철저히 베일이 가려져 있어 의혹만 제기될 뿐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창춘 난후호텔서 장시간 대기(8/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사흘째인 28일 귀국길에 오르는 듯 했다가 전날 숙소였던 창춘(長春) 난후(南湖)호텔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음. 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5분(한국시간 오전 10시5분)께 숙소인 난후호텔을 떠나 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과 지린(吉林) 농업대학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창춘이치자동차(제1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음.
- 그러나 의전차량은 창춘이치자동차로 향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이날 낮 12시 55분께 난후호텔로 돌아왔음. 창춘이치자동차에는 이날 오후 상당시간 무장경찰 등이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계경비가 이뤄져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었음.
- 창춘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호텔로 돌아와 오후 내내 머문 것



은 확실해 보인다”며 “이미 북중 정상회담 등의 주요 일정을 마친 것으로 보여 귀국길에 오를 게 분명해 보이지만 왜 시간을 늦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음. 이 가운데 북귀 노선이 노출된 탓에 경호상의 이유로 출발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 동북3성의 철도노선을 볼 때 창춘에서 북한으로 가는 노선은 쓰핑-통화(通化)-지안(集安)을 거쳐 만포로 가거나 쓰핑(四平)-선양-단둥(丹東)을 거쳐 신의주로 가는 두 길이 있는데, 이미 외신에 모두 보도된 탓에 만에 하나 경호사고 발생을 우려해 적당한 출발시간을 재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임. 창춘의 다른 소식통은 “철도당국이 쓰핑-지안 노선과 창춘-쓰핑-선양 노선의 경우 이날 자정까지 기차표가 매진됐다고 팔지 않고 있다”며 “휴가철 성수기임을 감안해도 매진은 이례적인 일로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 통행을 감안한 통제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춘역에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상여건으로 인해 철길 안전이 우려돼 교통편 조정을 하느라 지체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실제 지난 27일 오후부터 압록강 일대에 폭우가 내리면서 창춘-쓰핑-통화-지안-만포 노선과 창춘-쓰핑-선양-단둥-신의주 노선 모두 안전사고가 연쇄되면서 ‘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임.
- 일각에서는 의전차량 가운데 일부가 고장 나 출발이 지연된 것 아니냐 또는 ‘무리한’ 여행 일정 탓에 피로감을 느낀 김 위원장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출발을 늦춘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의전차량 가운데 1호차로 보이는 리무진 차량 1대가 승용차 운반차량에 실려 난후호텔로 들어가는 게 목격됐음. 그러나 외관상 리무진 차량에 파손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외부에서 수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김정일·정은 부자, 중국 방문 확인”(8/28)

-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아들 김정은이 고 김일성 주석의 모교를 방문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라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이들의 여행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28일 로이터에 밝혔음. 이 소식통은 “나를 믿어라. 두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100%”라고 말하면서도 더 상세한 사항은 밝히기를 거부했음. 김정일의 중국 내 방문 모습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음.

● <김정일訪中> 김정은 어디서 뭐하나(8/2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이유가 후계체제 구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계자 김정은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짐. 일단 아직까지는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위원장과 동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지난 5월 중국 방문 때는 숙소인 호텔 등에서 과감하게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선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김정은의 모습도 포착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동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음.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동행했다면 현 단계에서 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철저한 비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임.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도 후계자 신분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음.
- 특히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지린 위원 중학교 등 이른바 ‘김일성 항일유적지’를 돌아본 것으로 알려진 것도 김정은의 동행을 점치게 하는 대목임. 후계자에게 정권의 뿌리를 직접 보여 주고, 향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이곳을 돌아본 것을 ‘할아버지에 대한 효성’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임. 국회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중국 현지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3남 김정은이 동행했다고 한다”며 “이번 방중의 포인트가 후계 문제라는 얘기가 맞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깜짝 방중’의 이유가 후계체제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동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중국에게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보장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과 동행하면서 중국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음. 김정은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뿐 아니라 차기 지도자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면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김정은이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열린북한방송은 “이번 김정일 방중에 김정은은 동행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현재 평양에서 당대표자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태”라고 밝혔음.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후계자 김정은까지 중국을 동행하면 권력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평양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임. 여기에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공식직책을 맡은게 없어서 김 위원장을 동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김정은은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공식직책을 맡은 것이 없어 정상외교에 동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내정문제에 대해 북중 양국이 보여준 그동안 태도로 볼 때 북한의 후계문제를 양국 정상이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음.

● 김정일, 귀국 예상속 中산업시찰(8/2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사흘째인 28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농업박람회장과 농업대, 자동차공장을 찾는 등 빡빡한 시찰 일정을 이어갔음. 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5분(한국시간 오전 10시5분)께 투숙했던 창춘(長春) 난후(南湖)호텔을 출발해 시 외곽의 농업박람회장을 찾았으며 1시간 가까이 머문 뒤 다시 지린(吉林) 농업대로 향했음.

- 김 위원장은 중국 경찰 등으로 구성된 경호팀의 삼엄한 경계경비 속에 두 곳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의전차량은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해 창춘이치자동차(제1자동차) 공장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음. 김 위원장은 이치자동차에서 공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생산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됨.
- 창춘이치자동차는 1953년 설립돼 러시아제 트럭 ‘제팡파이’(解放牌)를 조립 생산하고 1956년 최초의 자국산 자동차를 출시한 중국의 대표적인 토종 자동차 업체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전차량이 일단 고속도로로 들어선 점으로 미뤄 김 위원장 일행이 차량편으로 창춘에서 지린성과 랴오닝(遼寧)성 접경인 쓰핑(四平)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김 위원장의 전용 특별열차는 창춘에서 쓰핑으로 별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음. 동북3성의 철도 노선을 보면 지린성 성도인 창춘에서 쓰핑-통화(通化)-지안(集安)을 거쳐 압록강 중간지점인 북한의 만포로 넘어갈 수 있음. 이 구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방중 때 이용했던 노선임. 그러나 이 노선은 주로 화물용 기차가 이용할뿐더러 철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지적임. 그렇지 않고 창춘-쓰핑(四平)-선양-단둥(丹東)을 거쳐 압록강 하구인 신의주로 가는 방법도 있음. 단둥-신의주 구간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해왔던 노선임. 그러나 최근 큰 홍수로 단둥과 신의주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이 구간을 기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창춘의 한 소식통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어느 구간을 택해 귀국길에 오를 지는 알 수 없다”며 “귀국길에 나서는 시점은 오후에 창춘이치자동차 등의 산업시설 시찰을 마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한편 중국 경찰이 이날 오전부터 창춘-쓰핑 고속도로 구간에서 교통통제를 하는 바람에 극심한 지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北, 신의주홍수 신속보도 ‘中 압박카드?’(8/2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북한이 최근 신의주 일대 홍수 피해 상황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배경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방중 기간 수해 원조를 위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대중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임.
- 북한은 압록강이 범람한 지난 21일 당일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매체를 동원, 신의주와 의주 지역의 살림집과 농경지의 피해 사실을 이례



적일 만큼 신속하게 보도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주택 7천750여 가구가 침수되거나 파괴되고 7천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혔다.

- 내부의 부정적 사안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 북한 매체의 관행상 실시간으로, 침수된 가옥과 농경지 등을 찍은 피해 현장 사진과 동영상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한 북한 매체들의 이번 보도는 파격적인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대외용’으로 분석했음.
- 지난 7월 이후 홍수 피해가 잇따랐음에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국제사회의 원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임. 그러다 신의주 홍수 피해 일주일 만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북한이 신의주 홍수 피해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목적이, 특히 중국의 지원을 확실하게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측이 최근 압록강 수역 댐들의 수문을 일제히 여는 바람에 중국 쪽은 피해를 면했지만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이 참혹한 피해를 봤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임.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 지도부와 재해 원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원 규모를 키워보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임. 두만강과 압록강 중간 지점을 국경으로 설정해놓은 북한과 중국은 수풍댐을 비롯해 압록강 유역의 크고 작은 댐들을 공동 관리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달 말부터 집중 호우가 계속돼 압록강 하류의 범람 가능성이 제기되자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수풍댐을 비롯한 압록강 댐들의 방류량을 늘렸음. 압록강 하류의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였음.
- 특히 지난 21일 폭우가 쏟아진 데다 압록강 상류 댐들을 방류하면서 압록강이 범람했음. 이에 따라 중국 역시 압록강 하류의 일부 지역도 피해를 봤지만 수방시설이 잘 갖춰진 단둥이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것을 비롯해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았음.
- 반면 신의주는 시가지마저 물에 잠기고 북한 매체들의 표현대로 이 일대 농경지가 ‘100%’ 물에 잠겨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됐음. 중국은 압록강 댐들의 방류에 앞서 북한에 수문 개방 방침을 사전 통보했고 북한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단둥보다 지대가 낮고 수방시설이 부족한 신의주 등 북한지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재 복구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음.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지난 24일 김 위원장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고 중국 당국이 북한에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임.
- 핵 실험과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가 북한의 재해 지원에 소극적인 가운데 중국 이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재해 원조가 절박한 상황이며 최대한 많은 원조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의 대북 재해 원조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신의주 등 압록강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르 피가로는 이날 “김정일과 그 아들의 의문의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4개월 만에 중국을 또 다시 방문, 여러 나라 정부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국내 정치상황이나 외교 전략에서 중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중대 변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설은 작년부터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후계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김정은이 이번 중국 방문단에 포함돼 있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예상보다 빨리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르 피가로는 그 이유로 북한이 “새로운 지도자 동지를 선출하기 위해 40년 만에 유례없이 9월 초 특별 인민대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정일의 ‘어린 왕자’(petit prince)가 처음으로 그간의 은둔에서 나와 공산당의 공식적인 제 2인자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는 베이징인민대학 북한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의 말을 전했다.
- 북한으로서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대규모 경제원조를 얻어내는 한편 2주 전 북서지방을 강타한 홍수 피해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르 피가로는 중국이 작년부터 북핵관련 6자회담 재개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북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다시 외교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음.
- 신문은 한국도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를 분리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북핵 협상 테이블 복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수도 있어 긍정적인 징후가 보인다”는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아카데미 류차오 교수의 언급을 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 일행이 한밤중에 북한 만포 국경초소를 통해 중국 지린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다시 한 번 “비밀리에 행동하는 예술을 뽐냈다”면서 김정은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음.

● 김정일-후진타오, 창춘서 정상회담 개최(8/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중이 어제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오늘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음.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께 의전차량 편으로 지린(吉林)시를 출발해 1시간30분을 달려 창춘 난후(南湖)호텔에 오전 10시30분께 진입했으며 호텔에서 오후 내내 김 위원장 의전차



량의 외출은 확인되지 않았음.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점심 시간 전에 난후호텔에 중국 수뇌부 가운데 중요인사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후 주석 아니면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후 주석은 최근 며칠새 휴양차 동북3성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날 창춘의 난후호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창춘 난후호텔에 도착한 이날 오전 10시30분 이후 중국 수뇌부의 호텔 진출입이 목격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후 주석은 그 이전에 호텔에 진입했을 것으로 보임. 북중 정상회담은 오후 시간대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며 오찬과 만찬을 통해 북중 수뇌부 간의 회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북중 양국은 아직 정상회담 개최여부는 물론 그 내용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천안함 사태후 동북아정세를 포함해 북핵 6자회담 재개 여부, 북중 후계구도, 양국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됨.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발생 후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 대립구도가 5개월여 지속되다가 근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6자회담 관련국 순방에 따른 대화 재개노력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됐음.
- 이날 오후 1시께 가무단원들이 탄 차량 3대가 난후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돼 두 정상을 포함한 양국 지도부가 만찬을 겸해 공연을 함께 관람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 그리고 이날 밤 10시까지 난후호텔에 들어갔던 북중 양국의 의전차량들이 나오는 모습이 전혀 목격되지 않아 후 주석 등이 난후호텔에서 숙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방중에서 사흘째인 같은 달 5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후 만찬’ 형식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4시간 30분간 회담한 바 있음.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창춘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 위원장의 귀국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빠르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귀국 행로로는 철길 사정으로 볼 때 창춘-쓰핑(四平)-선양-단둥-신의주 노선이 유력해 보임.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후 주석이 베이징(北京)도 아닌 변방의 창춘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는 게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시 부주석이 후 주석을 대신해 김 위원장과 회담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이날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난후호텔은 베이징의 다펬위타이(釣魚臺)에 해당하는 지린성의 영빈관으로 불리며, 고(故) 김일성 주석이 창춘을 방문할 때마다 묵었을 뿐 아니라 지난 40여년간 후 주석을 포함한 중국 당정 간부들의 숙소로 애용되는 곳임.



임.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공장 시찰에는 장성택, 김정희 외에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홍석형(당 부장), 태종수(당 부장) 3명이 수행해 다른 때보다 인원이 단출했음. 태종수와 홍석형은 각각 함경남·북도 당 책임비서로 있다가 지난 6~7월 당 부장에 발탁됐는데, 특히 태종수는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처형된 박남기(前 당 계획재정부장)의 후임으로 추정되는 인물임.

● 최재성 “김정일, 중국 상무위원과 오찬”(8/27)

-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의 한 정치국 상무위원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오찬은 지린(吉林)시 숙소 호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3남 김정은이 동행했다고 한다”며 “이번 방중의 포인트가 후계 문제라는 얘기가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일訪中> 주중 북한대사관 표정(8/27)

-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들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에 놀라는 모습이었음. 27일 베이징의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김위원장의 방북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럴리 없다며 강력히 부인, 그의 방북을 사전에 전혀 귀뜸받지 못했음을 시사했음. 관계자들은 김위원장의 방북 전날인 25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늦게까지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전혀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 한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방중할 당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며칠전부터 비상대기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왔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시 행적이 수시로 언론매체 등에 노출되자 주중 대사관에도 보안 유지를 강력 지시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음. 이 때문에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알고 있었던 인사는 최병관 대사를 비롯해 극소수였을 것으로 추정됐음.
- 한편 주중 북한대사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확인해달라는 언론매체들의 질문 전화에 모른다고 답변했음. 북한대사관은 27일 평소와 다름없이 한가롭고 평온한 분위기였고 차량과 직원들이 가끔 외부로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음.

● <김정일訪中> 극비 방중 속 난무하는 ‘설’(8/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틀째인 27일 북·중 양국의 함구로 김 위원장의 행적이 일체 베일에 가려지면서 갖은 ‘설’(說)이 난무하고 있음.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에서는 공개를 작심한 듯



언론 노출에 적극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임.

- 방중 첫째 날인 26일에는 김 위원장이 실제로 왔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었음. 특별열차 편으로 지린(吉林)에 도착한 인물이 김 위원장이 아닌 또 다른 북한의 실세일 가능성도 제기됐음. 몸이 불편한 부친을 대신해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이 조부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항일유적지인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같은 날 밤에는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의전차량들이 일제히 투숙장소인 지린 시내의 우송(霧淞)호텔을 빠져나갔다가 약 50분 만에 되돌아 왔음. 이 때문에 당시 북한에 머물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김 위원장만 몰래 귀국길에 오르고 의전차량만 되돌아온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왔음.
- 그러나 둘째 날에 김 위원장이 지린에서 창춘(長春)으로 이동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칩거한 채 나오지 않고 중국 수뇌부와 ‘오찬후 정상회담’을 했을 관측이 제기되면서 김 위원장 부재설은 쑥 들어갔음. 또 일본의 NHK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지린시 우송호텔에서 나와 창춘으로 향하는 일행 중에 김 위원장으로 보이는 인물을 화면에 잡아 보도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무게를 실었음.
- 이번에는 북·중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 여러 추론이 돌았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방중 첫날 베이산공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베이산공원에서 후 주석을 목격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일성 주석의 모교인 위원(毓文)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후 주석이 안내를 맡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 마침 후 주석이 근래 며칠 새 동북 3성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도 이런 추론에 힘을 실었음. 지린 시민들 사이에서는 후 주석이 26일 지린으로 건너와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다는 소문이 크게 돌기도 했음. 그러나 중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외교 및 의전 관례상 후진타오 주석이 지린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창춘에서 김 위원장과 후 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것이라는 데 큰 무게를 둬.
- 김 위원장과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의 면담 여부를 놓고도 각종 설이 불거졌음. 일본 도쿄신문이 26일 시진핑 부주석이 베이징(北京)에서 지린으로 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관영언론매체들은 시 부주석이 같은 날 오후 우루과이 부통령을 면담한 일정이 있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음.
- 창춘에서는 시 부주석이 전날 밤 창춘에 도착해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 소문이 돌았으나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고 있음. 한 현지 신문 기사는 “시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이 창춘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권력



서열 2~3위인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창춘에서 그를 만났을 것이란 추론도 내놓았음.

-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설과 관련, 지난 5월 방중 시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모두 김 위원장과 만났다는 관례에 비춰 복수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와 면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난후호텔로 들어간 의전차량이 밤 10시 현재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 그간의 관례와 달리 이 호텔에서 양국 지도부가 함께 숙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의 향후 동선에 대해서도 각종 설이 제기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신의주-단둥 노선이 아닌 지안(集安)루트를 통해 처음으로 방중, 결국 동선이 지린과 창춘으로 확인됐지만 처음에는 첫 행선지와 목적지를 놓고도 각종 설이 분분했었음. 이런 가운데 향후 행선지는 철로 사정을 감안할 때 창춘-쓰핑(四平)-선양-단둥-신의주 노선이 유력해 보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중 루트인 지린-지안 노선으로 되돌아가거나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시찰차 옌지(延吉)·투먼(圖們)을 들렀다 귀국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 <김정일訪中> 북중정상 무슨얘기 나뉘나(8/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틀째인 2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창춘(長春)을 방문,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두 정상이 지난 5월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후 만찬’ 형식을 빌렸다면 이번에는 ‘오찬후 정상회담’으로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여 만에 북중 두 정상이 다시 만나 밀월을 과시한 셈임. 마침 후 주석이 동북3성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어 창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는 하나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베이징이 아닌 지방을 직접 찾아 외국정상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임. 후 주석의 이런 제스처는 과감한 형식파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미묘한 시기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주는 ‘함의’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발생후 원인규명을 놓고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 대립구도가 5개월여 진행돼 오다가 근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6자회담 관련국 순방으로 대화 재개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회담이 이뤄진 점이 주목됨.
- 일단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 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북중 양국은 그동안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과 더불어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두 정상간 회담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기존 입장을 ‘완화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옴.



- 일각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큰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북중 모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상회담 합의문은 빨라야 김 위원장의 귀국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북중 정상이 이처럼 3개월만에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천안함 사태 이후 노골화하는 ‘한-미-일 대 북-중’ 대립구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아울러 북중 양국의 후계구도와 경제협력 문제, 아울러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이 교환됐을 것으로 보임.
-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선 북중 양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의 동서해 합동군사훈련과 미국-베트남간 합동군사훈련으로까지 비화된 미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따른 안보불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됨.
- 또 다음달 초순 북한의 노동당대표자대회가 열려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의 후계 지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북한과 중국은 노동당과 공산당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차기 지도자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지난 5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은 “양국간 전통적 우의관계가 세대교체로 인해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공통된 역사의 책임”이라고 말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음. 이와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데다 근래 홍수 등 자연재해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지린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추진중이고 이 계획의 핵심인 ‘동해 출항권’을 얻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 ‘전격訪中’..권력승계 행보 추정(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했음.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이날 새벽 0시대에 북한 자강도 만포를 거쳐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을 통과했으며 이날 오전 지린시에 도착했음. 김 위원장은 지린시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이 1927년부터 2년간 다녔던 위문(毓文)중학교와 항일유적지인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하고 화학섬유를 만드는 화시엔 공장 등 경제시설을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음.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밤 지린시 내의 우송(霧淞)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의 동선은 베일에 싸여 있어 여러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와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창춘(長春)시를 방문하는 등 동북3성 일대 방문을 마친 뒤 선양(瀋陽)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향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음. 또는 베이징까지 가지 않고 동북3성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됨. 그러나 예상을 깨고 27일 새벽 북한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 경우 방북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전격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억류중인 미 국적의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씨 석방을 위해 2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한 카터 전 미 대통령은 당초 26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체류일정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카터 전대통령은 27일 고프스씨를 대동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 및 일정에 따라 28일로 귀국이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임.
-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지린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과 시 부주석의 면담이 이미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할 경우 5일 가량 중국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베이징까지 가지 않을 경우 일정이 1~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초에 이어 석달여만에 이뤄진 것으로서 의례적 성격의 공식 방문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 하에 추진된 방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북루트는 통상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통해서 가던 루트와는 다른 루트”라며 “동일연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2회 방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방중 목적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내달 초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문제를 중국측과 협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정부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됨.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석달만에 방중했다면 특수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무래도 9월 초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방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과 함께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해 등으로 가중돼온 경제난을 돌파하고자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방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성지’(聖地)로 여겨지는 위원 중학교와 베이산 공원 등을 정은과 함께 방문함으로써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3~7일 4년만에 전격 방중,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음.



-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2004년, 2006년, 2010년 5월 5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 방중이 6번째임. 북한 매체들은 이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관련 일정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음.

● <김정일訪中> “中, 지린 철통 경비”(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 지린(吉林)시를 방문했을 때 현지 당국이 주변을 철통 경비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말했음. 지린(吉林)시 위윈(毓文) 중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한 중국 여성은 “그들(김 위원장 일행)이 아침에 도착했다”면서 “당시 수많은 공안이 도로에 배치돼 있었고 도로는 봉쇄됐다”고 이날 증언했음.
- 이 여성은 “그들이 간 후 공안들이 떠났고 도로 봉쇄도 해제됐다”고 말했음. 위윈중학교는 김일성 주석이 식민 통치하에 있는 조국을 떠난 후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수학했던 곳임. 지안(集安)시의 상강청 홀리데이 호텔 직원은 북한 대표단이 호텔에 머물렀다고 확인했지만 여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음. 김 위원장 일행의 향후 행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김정일訪中> 첫 행선지 왜 지린일까(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여 만인 26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다시 방문해 지린(吉林)성 지린시로 향한 것은 대내외에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제스처라는 지적임. 우선 방중 첫날 행보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임. 김 위원장은 전용 특별열차편으로 이날 새벽 0시대에 북한 자강도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을 거쳐 곧장 지린으로 향해 선친 고(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항일유적지를 방문했음. 지린시의 위윈중학교와 항일유적지인 베이산공원을 찾았음.
- 위윈중학교는 김 주석이 15세때인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수학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처음으로 접한 곳이고 베이산공원은 선친이 이끌던 항일 빨치산 부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동북지방의 혁명열사를 모신 항일유적지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천안함 사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필두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더 강화돼 고립이 심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선친의 혁명유지 계승을 강조한 행동이라는 것임. 특히 대내적으로는 다음달로 예정된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선친인 김 주석의 유지를 받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북한 내부를 단결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임.
-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북에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 김정은



- 을 동행시켰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지난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다음달 당 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이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김 위원장 부자가 방중에 동행했다면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김 위원장이 2008년 8월 순환기 계통 이상으로 뇌졸중이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에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친 유적지 동행 참배로 후계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여기에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이을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지린시로 달려가 김 위원장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북중 간에 차기 지도자를 서로 ‘승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음.
 - 아울러 지린시는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의 구심축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지린시 방문을 통해 경제행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내보이려 한다는 관측도 있음.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방문에서 첫 행선지로 다롄(大連)과 텐진(天津) 등을 방문해 산업시찰에 주력하는 등 경제에 방점을 찍는 행보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창지투 개발 현장을 찾아 대내외에 경제에 주력하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얘기임.

● 김정일 ‘전격방중’..권력승계 행보 추정(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했음.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0시대에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 자강도 만포를 거쳐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을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지린시에 도착했음. 김 위원장은 지린시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이 2년간 다녔던 위문(毓文) 중학교와 항일전쟁 당시 투쟁했던 중국인 등의 묘역이 있는 북산(北山)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
- 정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 당국은 며칠 전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사전 징후를 포착했으며 오늘 새벽 전용열차가 국경을 통과한 것을 파악했다”며 “정확한 행선지와 목적을 파악 중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초에 이어 석달여만에 이뤄진 것으로서 의례적 성격의 공식 방문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 하에 추진된 방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북루트는 통상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통해서 가던 루트와는 다른 루트”라며 “동일연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2회 방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방중 목적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음.
- 특히 내달 초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문제를 중국측과 협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정부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음.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석달만에 방중했다면 특수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무래도 9월 초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방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해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격 방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의 방중 동선과 최종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26일 지린, 27일 창춘을 방문하고 이어 선양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과 베이징까지 가지 않고 제3의 도시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를 만나 면담할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할 경우 5일 가량 중국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베이징까지 가지 않을 경우 일정이 3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현재 중국측은 북.중간 정상방문의 중국측 창구인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물론 국무원 산하 외교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김정일 방중과 관련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3~7일 4년만에 전격적으로 방중,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음.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2004년, 2006년, 2010년 5월 5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 방중이 6번째임.

● <김정일訪中> 주목받는 北中 경제협력(8/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주목받고 있음. 김 위원장이 최근 수해 등에 따른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려고 중국을 석달 만에 방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나아가 북한이 오는 9월 열릴 당대표자회에서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음.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경제분야에서는 긴장관계도 함께 존재하는 게 현실임.
-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했지만 북한은 자본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음.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중국의 영향으로 개혁개방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여왔음.

- 김 위원장은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산업기지 등을 시찰한 뒤 ‘천지개벽’,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의 표현으로 극찬했기 이는 이듬해 신의주특구 선포, 개성공단 착공,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의 개방적 행보로 이어졌음. 북한이 1984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 12월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를 모델로 라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 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2000년 북한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은 방식을 견지해오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위기에 놓이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결국 자국의 경제발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임.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은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을 때 식량과 원유, 석탄 등을 무상지원을 약속했고 그해 9월에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식량 20만과 디젤유 3만에 대한 무상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음.
- 중국은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왔음. 특히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간 교역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중단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런 양국간 관계에 비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임. 북한이 앞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북한은 개혁개방에 나서면 주민들에 대한 정권의 통제수단이 약해지고 체제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임. 반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 <김정일訪中> 권력승계 급진전?..김정은 등장 주목(8/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개월여만에 다시 중국을 전격 방문한 목적 중에는 작년 초부터 준비해온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마무리짓는 것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임. 무엇보다 내달 초순 44년만의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코앞에 두고 방중이 이루어진 점도 이 점이 주목됨. 이번 당 대표자회에 시선이 쏠려 있는 이유는 노동당의 체제 재정비와 함께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1980년 소집됐던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로 선임됨으로써 대내외에 고 김일성 주석한테 물려 받는 후계 체제를 공식화했음.
- 따라서 김정은도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임. 이런 시점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은 어떤 식으로든 후계 구도 공식화와 맞물려 있을 것으로 관측됨. 예컨대 당 대표자회에 앞서 수해와 식량난으로 어지러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중국측에 식량 등 물자 지원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천안함 사건과 유엔 제재 등으로 코너에 몰린 체재 기반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해 ‘안보적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
- 실제로 북한은 이번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갑자기 노동당을 띄우는 대내외 선전 활동을 대폭 강화했으며, 외신과 대북 매체들도 이번에 김정은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같은 최고 요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성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음.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빛나라, 선군장정 천만리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시를 게재했는데, 이 시에는 김정은을 지칭하는 ‘발걸음’과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함.
- 이밖에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북한의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번 당 대표자회의 소집 목적은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선하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노동당의 요직인 조직담당 비서를 맡고, 정치국 상무위원에 장성택, 김영춘, 오극렬이 선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사실 김정일 위원장은 작년 1월8일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그를 후계자로 낙점하고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관련 ‘교시’를 시달한 이후 하나 하나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음. 김정은 찬양가요 ‘발걸음’을 각급 기관의 공식행사 필수곡으로 지정했고, 작년과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대규모 ‘축포야회’(불꽃놀이)를 잇따라 열어 김정은 ‘업적쌓기’에도 힘을 실어줬음.
-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후견인 격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이나, 선전선동 사업을 맡아온 강능수 문화상을 부총리에 임명한 것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됨.

라. 일·북 관계

● 日 “북한 감시 위성 고장”(8/29)

- 북한의 군사시설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중 1기가 23일 고장 났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



음. 내각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고장 난 위성은 2007년 2월에 발사된 ‘레이더 2호’로 일본이 운용 중인 정보수집위성 중 유일하게 밤이나 구름이 끼었을 때에도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임. 설계수명은 5년이지만, 전원 계통이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일본은 현재 복구작업을 서두르고 있음. 정보수집위성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도입됐음.

- 일본은 현재 맑은 날에 촬영할 수 있는 광학 위성 3기와 레이더 위성 1기를 묶어 4기 체제로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루 1회 이상 지구상의 특정 지점을 촬영하기 위해 광학 위성 2기와 레이더 위성 2기 체제로 운용할 예정임. 현재 광학 위성 3기는 이상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레이더 1호기는 1997년에 고장 났고, 차기 레이더 위성은 내년 2월에 발사할 예정이어서 한동안 야간 촬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8일 시찰지인 기타큐슈(北九州) 시내에서 기자단에 “레이더 위성은 지금까지 매우 도움이 됐음. 상태가 나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日, 조총련계 고교 무상교육 포함 결정 미루기로(8/28)

- 일본 정부가 이달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장.차관과 정무관 등 정무3역은 이달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여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음.
-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은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이 문제를 검토해온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조선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시설, 교원의 수준 등이 일본의 일반 고교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었음.
- 하지만 일본 내 남북 피해자 단체가 “조선학교 무상화 포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일본 내 여론이 나빠지자 막판에 결정을 미뤘음.

● 日 “北 권력이동 진행 중일 가능성”(8/27)

- 일본 정보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나 내달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에서 한창 권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음. 이같은 보고는 일본인 남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관계 부처간 연락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오쓰카 고헤이(大塚



耕平) 납치문제 담당 내각부 부(副)대신이 밝혔음. NHK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등의 관계자가 “조만간 북한에서 권력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다소 다르게 보도했음. 방송은 또 일본 정부가 이런 전망을 근거로 각 부처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연락회의는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본부장 간 나오토 총리)의 하부 조직 성격으로, 모임이 열린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이날 회의에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과 내각부와 외무성 등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음.

마. 기 타

● 駐쿠바 北대사 “공격받으면 핵역제력 사용”(8/28)

-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권성철 대사는 27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말했음. 권 대사는 이날 쿠바와 북한 간 외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경우 우리는 핵역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권 대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사는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 현 상황은 북한과 쿠바 국민들 간 지지와 유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음. 북한과 쿠바는 1960년 8월 29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두 나라는 현재 국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문화적 및 정치적 행사를 열고 있음.

● “IFRC, 北수해에 37만弗 긴급지원”<VOA>(8/28)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최근 압록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북한의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예산 36만8천750달러(한화 약 4억4천만원)를 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이 28일 전했다. IFRC는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압록강 일대에서 일어난 홍수로 신의주를 비롯한 압록강 연안 일대에서 약 1만5천가구가 집을 잃었다”면서 “북한의 수재민 1만6천명을 지원하고자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36만8천750달러(한화 약 4억4천만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IFRC 중국 베이징 사무소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을 인용, “조선적십자회가 재난구호 긴급자금지원 요청해 이를 논의했으며 27일 지원대상과 기간, 규모 등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음.
- 이 기금은 앞으로 3개월간 IFRC가 ‘이동용 수질정화기’를 이용해 신의주 일대 수재민 1만6천명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취약층으로



분류된 2천500가구(약 1만명)에게 주방기구, 담요, 식수정화제 등이 포함된 구호품 세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 IFRC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총 2만7천개의 응급구호품 세트를 북한에 준비해줬고 이중 1천84개는 이미 자강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등 북한의 수재민에게 전달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신의주 외에도 자강도, 평안남도 등에 ‘재난 대응관리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조사를 진행하고 식수정화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방송은 “북한에 머물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기구 직원 12명은 26일부터 이틀간 신의주 일대의 수해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면서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 보고서에 ‘신의주시는 온전해 보이지만 비에 젖어있다’고 썼다”고 전했다.

● 반기문 총장 “곰즈 석방 北 결정 환영”(8/28)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곰즈 씨를 석방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했다. 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반 총장은 곰즈 석방이라는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 따르면 반 총장은 또 최근 북한의 수해와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각국의 지원을 독려했음. 유엔은 최근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신의주 일대 1만5천가구에 구호품을 제공하기로 했음.

● “폴란드 당국, 北계좌 불법송금 조사 방침”<RFA>(8/26)

- 폴란드 금융당국이 자국 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북한 계좌 현황과 이를 통한 불법자금 송금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익명을 요구한 폴란드 소식통’을 인용, “폴란드 금융감독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목한 폴란드 Kredyt 은행의 북한 계좌 현황과 이를 통한 자금 송금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Kredyt 은행 계좌에 예치한 뒤 본국에 송금하는 문제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RFA는 이와 관련, “폴란드 금융감독원은 아직 북한의 불법 계좌와 송금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접하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폴란드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작성한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계좌가 개설돼 있는 8개 유럽국가에 포함됐고, 특히 ‘Kredyt’은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유엔 제재 1874호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연합개발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21개 해외 은행 중 하나로 지목됐음.

● “IFRC ‘北신의주 홍수로 14명 사망’ 보고”<RFA>(8/24)

-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6만4천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했다.
- RFA는 국제적십자사(IFRC)의 ‘긴급 상황보고’를 인용,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의 범람으로 이 지역에서 주민 1만5천 가구가 가옥을 잃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헤어진 가족도 찾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IFRC는 또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홍수 발생 당일 ‘재난대응팀’을 신의주에 급파해 이동식 식수정화기 두 대를 전달하고 이재민 2천500가구에 주방기구, 담요, 식수 정화제 등이 포함된 구호품 세트를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 IFRC는 장마철에 앞서 조선적십자회에 재난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응급구호품 2만7천세트를 미리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IFRC 중국 베이징 사무소의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적십자 현장조사단이 24일 다시 신의주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선 IFRC의 ‘재난구호긴급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특별모금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주한美기지 이전사업 미측 부담금 사실상 없어”(8/29)

-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과 관련, 미국 측이 지불하는 순수 부담금은 사실상 한 푼도 없을 전망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7천억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임. 미측은 우리 정부가 연합방위력 증강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 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 미측은 최근에는 1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설계비 등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보증해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미측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되는 ‘전략동맹 2015’에 이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동맹 2015’는 2015년에 리모델링된 동맹의 모습을 공동전략비전 형식으로 채택하는 문서를 말함. 이에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측은 설계비 등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길 희망하고 이를 ‘전략동맹 2015’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움직임이 보이는 등 현재 미측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미측의 순수 부담금은 한 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美 국방부 고위간부 2명 UFG연습 참관>(8/27)

- 지난 26일 종료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 고위 간부 2명이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음. 관계자는 27일 “이번 UFG 연습에 마이클 쉬퍼 미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앤디 웨버 국방부 핵·생화학방어프로그램 차관보가 참관했다”며 “쉬퍼 부차관보와 웨버 차관보는 각각 24일과 26일 국방부를 방문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미측 수석대표인 쉬퍼 부차관보와 대량살상무기(WMD) 방어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인 웨버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참관한 것은 미측이 올해 UFG 연습을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키 리졸브 훈련 때는 북한의 WMD 제거를 전담하는 임무를 맡는 미군부대가 참가하기도 했지만 WMD 방어프로그램 최고 책임자의 훈련 참관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연습 기간 ‘정부종합상황회의’를 주관하면서 “종전 후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제대로 해보자”며 통일부의 참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샤프 사령관이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매년 진행되는 UFG 연습이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해보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UFG 연습에서는 개전 및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 과정에서 접경지역에 중국과 러시아군이 개입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했다”면서 “정부는 두 나라 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펼치는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쉬퍼 부차관보는 지난 24일 국방부를 방문, SPI회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나 10월 8일께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의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티븐스 주한美대사 전남도청 방문(8/27)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박준영 전남지사와 만나 전남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음. 스티븐스 대사의 이날 방문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 여수-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전적지 자전거 투어에 앞서 이뤄졌음. 박 지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했던 한미연합군의 전적지를 한국 대학생과 자전거로 답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뜻을 되새기고 더욱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뜻 깊은 행사”라고 말했음. 또 “BIE(국제박람회기구) 비회원국인 미국 정부가 여수엑스포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조기에 밝힌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10월에 열리는 F1대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이에 대해 “대사관 차원에서 전남도의 국제행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음. 도청방문을 마친 스티븐스 대사는 목포 문화의 거리 등을 둘러본 뒤 28일에는 여수엑스포 현장을 시찰하고 29일부터 대학생 50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전적지까지 둘러볼 예정임.

● 정부, ‘이란제재’ 가급적 조기 시행키로(8/27)

-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대(對)이란제재 조치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6일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조치와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조기 시행 방침을 밝혔음.
- 천 차관은 “한미 양국은 어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이란제재 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제재의 내용과 적용 범위, 기준, 구체적 이행 절차, 법적 제도적 장치, 이행 주체 등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 그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돌아가 관계부처가 모여서 세부 이행지침, 방향 등을 좀 더 협의한 뒤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동참 결정 배경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핵 비확산 문제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응당한 도리이고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이란과 갖고 있는 중요한 경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법적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여하히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멜라트 은행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구상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미국도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필요하다면 연장선상에서 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문제는 우리가 취할 조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멜라트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이 유엔 안보리의 직접적인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등 멜라트은행이 안보리의 이란제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결과를 갖고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대 이란제재 조치에는 이란과의 합법적 무역거래 등에 따르는 화물 검색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실무차원의 한미간의 추가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나, 아직 이란과의 협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4일 워싱턴에 도착한 뒤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 등 미 국무부,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당국자들과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했다.

● <美대사 “한미 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해”>(8/25)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음. 안 대표는 “스티븐스 대사가 부임한 지 2년이 됐는데 한미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며 “대사께서 한국말을 잘 하시니 우리 국민이 언니나 누나처럼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정말 훌륭한 대사님을 맞이했고 한미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사께서 영원히 한국에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스티븐스 대사는 “안 대표께서는 평생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 오셨고,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대표와 한나라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양국은 경제회복이나 G20정상회담, 안보 관련 여러 과제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관계를 특별하고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스티븐스 “한국, 이란에 명백한 메시지 전해야”(8/24)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4일 “한국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에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차



충청포럼 초청강연에서 ‘한·미관계와 양국 동맹의 미래’란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도 중동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해 나름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기록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더 가까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이 이란과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자체를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자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음.
-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나 EU가 취한 조치들을 보면 이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명백하게 나와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입장에서 이란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또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핵확산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하면서 “한국이 이란에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란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의와 관련,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또 한번 업데이트시켜 줄 것”이라면서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FTA 문제를 토론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의원들을 만나 자동차나 쇠고기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천영우 외교2차관 방미..이란제재 협의(8/24)

-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음. 대표단은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이끌며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단은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미국 정부가 시행세칙을 통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처리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외교를 맡고있는 천 차관이 협상대표를 맡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제재공조를 협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정부는 또 미국과는 별도로 이란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中, 한·미에 앞서 내달 1~4일 서해훈련(8/29)

-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해함대가 내달 1~4일 서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2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함대 본부가



있는 칭다오(靑島)시의 남동쪽 바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같은 달 서해에서 계획 중인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앞서 실시되는 것임. 중국 측은 한·미 연합훈련에 거둬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에 나름대로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바 있음.

- 중국 국방부는 그러나 성명에서 이번 훈련이 함대의 평소 훈련장에서 이뤄지는 연례적인 것이라면서 주로 선상 포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5~28일 동해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에 이은 서해 훈련을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우다웨이 방한.. 위성락과 회동(8/26)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할 예정이다. 우 대표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하고 만찬회동을 갖음.
- 우 대표는 위 본부장에게 지난 16~18일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을 전달하고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대해 위 본부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비롯한 ‘책임있는 행동’을 선행적으로 보이고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우 대표의 방한에는 양허우란(楊厚蘭) 6자회담 차석대표 등 중국 외교부의 6자회담 관련 실무자 5~6명이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음. 우 대표는 또 27일 오전 장관 대리를 맡고 있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하는데 이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할 계획이며 28일 오전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준수를 제시했음. 우 대표는 지난 16~18일 북한을 방문, 박의춘 외무상과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음.

● 中전문가 “한·중 냉전 잔영 떨치자”(8/25)

-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남아있는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철저히 떨쳐 버리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



국에서 나왔음.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위샤오화 주임은 당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국제논단에 실린 ‘한중교류, 더 많은 울타리를 돌파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음.

- 한반도 전문가인 위 주임은 24일의 한중 수교 18주년을 맞아 작성한 이 기고문에서 한중은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상호신뢰와 양보의 정신아래 대국적인 안목을 갖고 평등한 협상을 통해 이미 공유한 공동인식에 대한 소통을 부단히 심화하며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야한다고 역설했음. 기고문은 한중이 수교 18년간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안보, 경제, 문화, 민간교류 등 다방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성과의 이면에는 문제와 도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음.
- 한중간의 문제와 도전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 속에서 경쟁적인 요인 증가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 국면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 등이 꼽혔음. 기고문은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길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기고문은 동북아 정세가 북핵문제와 역내에 대한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정책으로 불안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하고 정세불안의 최대 피해자인 한중은 소통을 강화하고 불안 해소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며 6자회담을 재개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中언론, 한·일 신협력관계 제의설에 경계(8/24)

- 중국 관영 언론들은 24일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국에 북한과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제의했다는 교도 통신의 보도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음.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외교학과 황다후이(黃大慧) 부주임은 이 날짜 당기관지 인민일보 국제논단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간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일관계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간 총리의 제의가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음.
- 기고문은 한일이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체제가 비슷하고 가치관과 문화적인 면도 가까운 점이 많고 ▲북한핵에 따른 안보 우려가 있으며 ▲한일과 서로 동맹인 미국이 한일의 협력 강화를 중재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음.
- 기고문은 그러나 한일 간에는 최근 간 총리의 한일합방에 대한 사과를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불시에 양국관계를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문제와 영유권 분쟁의 해묵은 채증이 증거하듯 간 총리의 말한마디로 해소될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고문의 논조가 중국을 공동 대응 목표



로 삼자는 일본측 제의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계를 표시한 것과 달리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에서 이 구상을 직접 비난하고 일본정부에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라며 냉정을 촉구했음.

- 공동 사설은 일본 측의 구상은 냉전시대때 한·미·일 삼각 동맹과 북-소-중의 북부 동맹간의 대결 구도를 연상케 한다고 비난하고 이는 동북아 질서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음. 사설은 간 총리 내각에 이런 구상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남북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의 개입 부담을 받아들이 것같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음.
- 사설은 이어 일본은 과거 냉정을 잃고 참담한 결과가 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관리가 대외에 발표를 할때나 정부가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냉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사설은 또 중국이 대국으로 우뚝 일어서고 있는데 대한 한일 양국의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중국은 한일 양국과 교류를 강화, 그들의 신뢰를 얻고 오해로 인한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류우의 “이전 불구 한중관계 더 발전할 것”(8/23)

- 류우의 주중 한국대사는 23일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이상기류를 인정하면서도 수교 18년간 발전시켜 온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했음.
- 류 대사는 한중 수교 18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부임 직후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상당히 분주한 날들이 계속됐고 천안함 사건 이후 온 국민이 걱정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류 대사는 “국내에서는 천안함 사후 처리 과정에서 중국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중국 측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이 과정은 종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음.
- 주중대사관 측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상기류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간의 교류와 소통이 단절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 부문에서 예정됐던 회의나 방문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삼성과 LG의 차세대 LCD 생산라인 건설 비준이 늦어지는 것도 천안함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음. 실제로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4월부터 5월, 6월 3차례에 걸쳐 후진 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국회 차원의 교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고위급 상호방문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음.
- 류 대사는 수교 18년간의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태 등 이전차를 잘 극복하면 더 튼튼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그는 “1992년 수교 당시 빈곤했던 양국 관계는 18년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평가했음.

- 그는 한중 관계가 짧은 시간 급속도로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의 결과가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음. 류 대사는 “수교 18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는 천안함 사태 등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한중 양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중 우호관계의 큰 흐름을 잘 성장시켜 왔다”면서 “개별 사안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보면 건전하게 관리되고 더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유명환 ‘日軍위안부 청구권 해결안됐다’(8/25)

-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와 사할린 한국인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지이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이들 언론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한국측이 청구권을 포기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와 다른 입장이다”고 말했음.
- 니혼게이지이신문은 이에 대해 “이는 1965년 한일기본협정 당시 체결한 관련 협정으로 청구권 등이 법적으로 소멸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만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한국인 문제 등은 당시 협상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 유 장관은 간 총리의 한일병합 100년 담화와 관련 “‘병합이 (한국인의) 뜻에 반해 이뤄졌다’는 언급은 역사인식에서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간 총리가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인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기에 반환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음.

● 日평화통신사, 여주·이천 방문해 강제침탈 사죄(8/25)

-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내 진보성향이 있는 사회단체 회원과 지식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일본 평화통신사가 27-28일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강제병합을 사죄할 예정임. 일본 평화통신사는 강제침탈과 강제병합으로 한국인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을 사죄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27일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된 이천오층석탑을 환수하기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함. 28일에는 여주 신륵사에서 아침공양을 하고



나서 명성황후생가를 찾아 참배할 예정임. 일본 평화통신사의 방문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 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명성황후기념사업회, 신륵사,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가 주관함.

● 日 “정부간 한일기본조약 보완논의 답 안 나와”(8/25)

- 100년 전 한국강제병합조약의 유·무효 논란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보완·개정 주장과 관련해 일본측이 정부간 보다는 민간 레벨의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은 25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외신 상대 오찬 강연회에서 한일기본조약 보완·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정부간에 논의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음. 오카다 외상은 다만 “전문가나 연구자 등 민간 레벨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단 뒤 다시한번 “정부간에 의논을 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박았음.
- 이 질문은 일본측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부터 줄곧 ‘1910년 한국강제병합 조약이 당시에는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기됐음. 오카다 외상은 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일한 양국의 의견이 다르다. 일본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당시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유·무효 논쟁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일한기본조약 당시에 양국이 ‘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봉인했다고 설명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음.
- 그는 또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중국이나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호의적으로 보는 등 (일본과) 중국, 한국, 아세안(ASEAN)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이즈미 정권 당시의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등 한국과 정치·경제 수준에서 새로운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이 앞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중국 등 신흥국 외교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방침도 설명했다. 오카다 외상은 “(일본) 외무성은 어제 신흥국 외교추진실을 설치했다”며 “앞으로 3~5년간에 걸쳐 선진국에 있는 외교관 100여명을 신흥국으로 이동·배치할 생각이다. 이는 선진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파워 시프트(권력이동)에 맞춰서 외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 日 언론 “‘병합조약 무효’ 주장은 남북 일치”(8/23)

- 한국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지난 22일 남북한이 “조약은 무효”라는 입장에서 일치했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 미국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나흘만인 지난 24일 특별기를 방콕 돈므앙 공항에 파견, 부트의 신병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태국 정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트의 신병을 아직 미국에 넘기지 않고 있음. 태국 법무부는 부트가 돈세탁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이들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부트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마. 중·일 관계

● 中-日, 제3회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8/29)

- 중국과 일본은 28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제3회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양국 경제협력방안과 세계경제회복 대책, 그리고 국제 및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을 각각 대표로 한 두 나라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그리고 양국 간 성장엔진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관영 영자자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음. 왕치산 부총리는 양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를 들어 오는 2012년 한·중·일 자유무역지대(FTA)를 설립하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음. 왕 부총리는 중국은 일본의 선진 산업과 기술, 시장관리 기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일본은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에서 이익을 취할 점이 많아 양국 경제 관계는 보완적이라고 역설했음.
- 오카다 외무상은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에 기여한 데 대해 칭찬하고 양국은 전략적 상호 관계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한편 장관급 6명과 차관급 3명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0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최근 수출량을 대폭 감축한 희토류(Rare Earths) 수출을 늘리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中과 고위급 경제대화에 120명 대표단(8/28)

- 일본이 2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 등 대표단 120명을 파견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음. 일본이 외국에 파견한 대표단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것으로 보임.
- 이번 회의에는 일본측에서 오카다 외무상과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경제산업상, 오자와 사키히토(小澤銳仁) 환경상,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농업수산업상 등 장관 6명과 차관 3명이 참가함. 중국측에서는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함.
- 일본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최근 수출량을 대폭 감축한 희토류



(Rare Earths)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임. 중국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출량을 지난해 5만에서 올해 3만으로 대폭 줄이자 일본 업계는 친환경 자동차나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점하고 있음. 하지만 니혼게이지신문은 “큰 양보를 얻어내리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드물다”고 전했다. 중국측은 일본에 환경 분야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무역·투자의 환경 정비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中 우다웨이, 한국 거쳐 28일 방일” <교도>(8/25)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28일 방일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음. 지난 16~18일 방북했던 우 대표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한 뒤 28일 일본에서 민주당이나 외무성 간부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임. 일본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표명하는 등 회담 조기 재개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카다 日 외상 26일 방중(8/24)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4일 밝혔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위(姜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카다 외상이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한다고 설명했다.
- 오카다 외상은 이번 방중에서 양 부장과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현안과 긴장이 조성된 동북아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다 외상은 중국의 최고지도부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음. 양국 외교장관간의 최근 회담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며 이 회담에서 양국은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음.

● 日 “중남미와 협력 강화..中 공세 대응”(8/23)

- 일본이 중남미 국가들과 주요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3일 EFE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NEC, 미쓰비시, 후지츠 등 기업 관계자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함. 일본은 우주항공산업, 인공위성 시스템, 휴대전화 장비, 개



인 보안장비, 디지털 TV 등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중국의 중남미 지역 내 영향력 확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일본이 중남미 국가들과 우주항공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업·에너지·IT 등에 집중됐던 기존 협력 관계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디지털 TV 분야의 경우 일본과 브라질은 이미 깊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일본의 디지털 TV 방식인 ISDB 기술을 기본으로 SBTVD(영어명 ISDB-T)를 개발했음.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이 SBTVD를 채택하기로 했음.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SBTVD를 채택한 국가는 11개임.
- 브라질 정부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2014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전까지 전국에 디지털 TV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앞서 기존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완전 대체한다는 계획임.

바. 기 타

● 천영우 외교2차관 귀국..“이란제재 조속실시”(8/28)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8일 대 이란 제재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대 이란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대 이란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미했던 천 차관은 이날 오후 4박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연합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음. 천 차관은 “우리 정부는 향후 이란 제재와 관련한 기술적인 이행절차와 기준, 대상, 관련 법령 등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도 우리 정부의 추진 방향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천 차관은 “우리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의무적 사항과 권고적 사항을 모두 이행한다는 방침이며 각국의 재량에 맡겨놓은 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안보리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이란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천 차관은 그러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3일 부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가 다시 열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처리방향을 비롯한 대이란 제재 추진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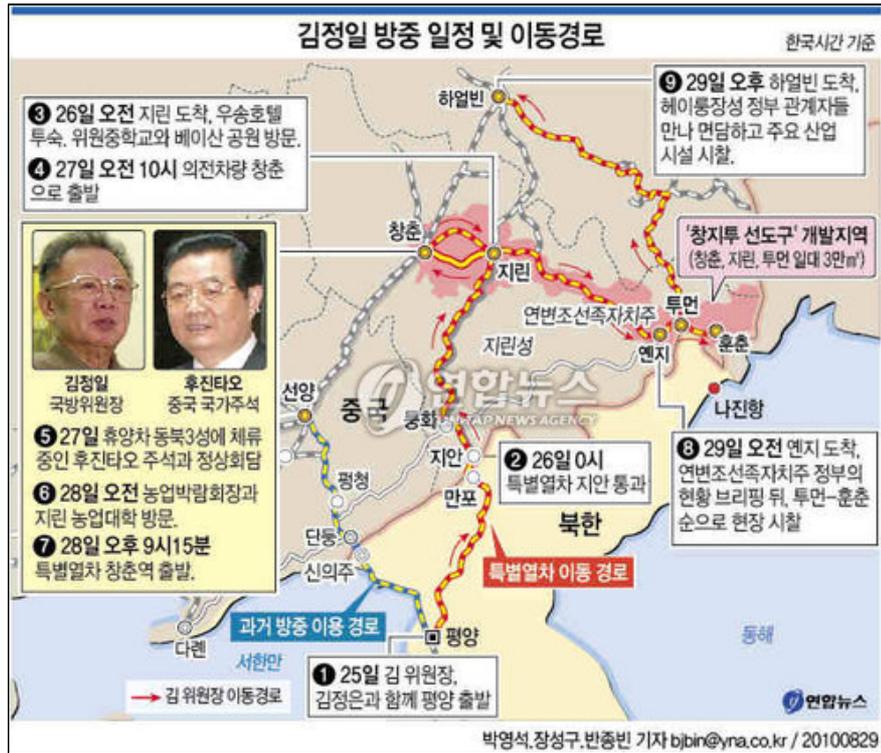


관은 지난 24~27일 방미기간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등 미 국무부,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당국자들과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했음.



[참고 1] <그래픽>김정일 방중 일정 및 이동경로(8/29)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9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pjk@yna.co.kr, kjihn@yna.co.kr, js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29/0511000000AKR20100829080600083.HTML>